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들어가며



여성노동자가, 남성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한편, 여성이 하는 노동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도 높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언제나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는 집계하지만 일을 하다 다치고 아프게 된 노동자의 규모는 보여주지 못한다. 산재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통계로 잡는 지금의 산업재해 통계 방식은 산재보상의 문턱 앞까지 오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산재를 가리게 된다.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큰 변화이지만, 크고 심각한 사고가 아니면 산재가 아니라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노동건강연대는 2019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다치고 아프게 되었지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동자,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산재 보험 급여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찾아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했다.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이 사업을 통해 3년간 179명의 노동자가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여성은 22.2%(39명)이었다, 20~30대 여성 노동자는 5.02%(9명)였다.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을 찾고자 하였고, 직종, 연령, 성비에 다양성이 반영되기를 바랐으나 쉽지 않았다. 노동조합, 노동자 지원 단체, 기관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여성 노동자들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만 15세~39세 남녀 청소년·청년 10,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에 따르면, 취업난에 코로나19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며 청년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졌다. 남성 52%, 여성 56.6%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남성 31.4%, 여성 45.7%가 우울감과 무력감, 절망감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청년 여성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21년 발표한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수입이 200~250만 원인 사람이 33.4%로 가장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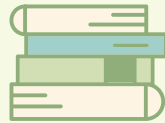
150~200만 원인 사람도 18.7%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응답자 중 68.6%(3,277명)가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청년 여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밝히기도 했다. 여성노동자의 산재, 직업병에 대해 정부의 주 관심사는 임신과 출산 등 재생산에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청년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왜 우울한지,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일을 하다 다치고 아픈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2,30대 여성 노동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자신의 노동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은 산재보험제도에서 멀리 있다. 노동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용주와 일대일로 계약을 맺고, 또는 계약도 없이 종속적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라고 외치거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안전하게 일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공허하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일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다시 우리가 진행했던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으로 돌아와서, 산재보험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는 일도 제도를 중심에 두고 보느냐, 노동을 중심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우리 산재보험 제도는 고용주가 명확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노동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보면 산재보험이 얼마나 좁은 범위의 노동자만을 포괄하는지 알게 된다. 고용주가 드러나지 않거나, 여럿인 경우, 기간이 짧은 노동을 반복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보이지만 감시당하는 노동을 하는 경우처럼 다층적이고 복잡해지는 일의 세계에서 일을 하다 다치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사람 중 다수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각지대는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한다. 어느 곳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각지대도 달라질 것이다.

목차



I. 사전조사	08
1. 사전조사 part 1. 단체 인터뷰	10
2. 사전조사 part 2. 당사자의 목소리	18
II.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26
1. 전체 신청자 통계	28
1) 인구학적 통계 : 나이, 학력, 거주지	28
2) 직업	30
3) 임금	32
4) 치료비 부담 방법	33
5) 산재신청하지 않은 이유	34
2. 최종 지원 대상자 분석	36
1) 비수도권, 고졸 청년여성에게 더해지는 차별	37
2) 자녀 또는 부모... 부양 부담 짊어진 청년여성	38
3) 질병 : 근골격계질환부터 정신질환까지	39
4) 40%,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40
5) 일하다 건강이 나빠지면? 30%는 직장을 잃었다	42

III. 심층인터뷰 :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46
1. 심층면접 개요	47
2. 심층면접 결과	48
1) 청년여성의 일 경험	48
① 생계형 노동 : 저임금 불안정 노동	48
② '나이 어린 여성'으로 일하기	50
2) 청년여성의 일과 건강 경험	54
① 빠르게 반복해야 하는 작업들 : 근골격계 질환	54
②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일하기 : 업무상 긴장 상태	59
③ 정신질환	62
④ 직장 내 성희롱	64
3) 청년여성의 산재 (미)이용 경험	65
① 내 병이 "산재인 줄 몰랐다"	65
② 산재신청 경험	66
③ 업무상 사고의 대응 경험 : 자비로 치료하거나 참고 일하거나	67
④ 산재보상 미이용 경험 : "산재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70
4) 산재회복지원사업 이용 경험	74

IV. 평가와 계획	80
1. 만족도 설문결과	80
1) 회복지원비 지출 항목 1위는 '치료비', 2위는 '생활비'	81
2) 지원비 수령 이후, 82%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치료받음'	82
3) 지원사업 만족도, 88% 5점 만점	83
4) 서로 나누고 싶은 말들	84
2. 지원사업을 마치며	88



I. 사전조사

1. 사전조사 part 1. 단체 인터뷰

2. 사전조사 part 2. 당사자의 목소리

Part. I

사전조사



일하는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소통할까. 노동조합은 고용, 임금, 기업 내 복지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협상하는 창구로 기능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바로잡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46.3%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70%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0.2%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2021년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103만 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여성조합원은 35.9%로 나타났고, 전체조합원의 평균연령은 45.6세라고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자리가 아직은 좁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와 고용형태가 불안정하여 이직이 잦거나, 노동자성을 다루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있을까? 해고, 임금체불, 산재, 성희롱 같은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들은 상담 단체를 찾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상담 등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적,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퇴사, 이직과 같은 방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을 테니 그 크기는 알 수가 없다.

여성·노동단체, 산재상담 단체, 법률단체 등을 찾아 청년여성들이 상담을 해 오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들 때문인지 파악해 보고자 단체들을 방문하여 들어보고자 했다. '직장갑질119',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같은 노동·산재 상담 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은 여성노동단체를 찾았고, 법률상담 추이를 알아보고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를 찾았다. 청년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모임인 '마니또'와 '청년유니온'을 찾았고,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 여성 청년들을 만나고자 '전북여성노동자회'를 찾았다. 지방의 여성단체들을 좀 더 만나고자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를 만난 것으로 대신하였다. 두 단체 모두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한 곳이라, 수도권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들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빈곤 가정의 탈학교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학교'를 만났고, 청년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직종으로 알려진 '방송작가 유니온'을 만났다. 일하는 학교에서 만난 청년여성들은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었고, 방송작가 유니온에서는 특정 직종이긴 하지만, 한 산업 안에서 '나이 어린 여성'의 노동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었다.

우리가 만난 단체들의 활동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단체의 이야기와 당사자들의 이야기로 나누어 짚어 보고자 한다.

Part. I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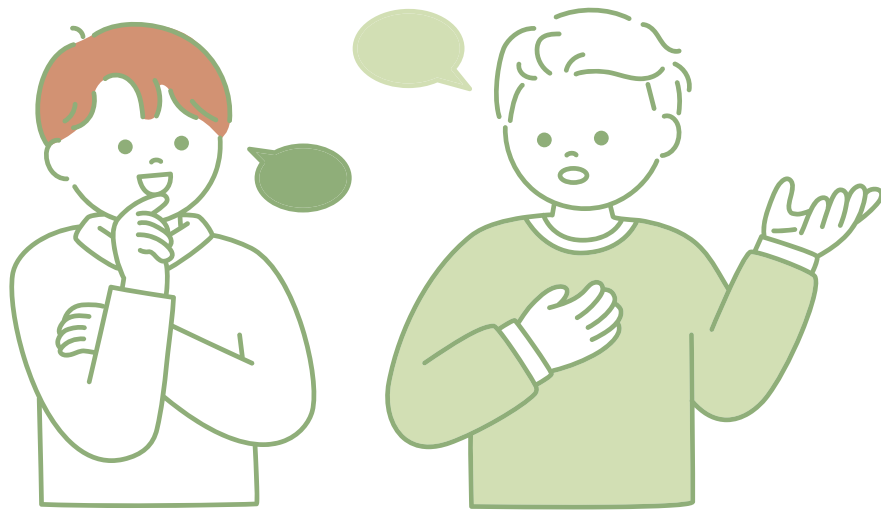
01. 단체 인터뷰

“20대들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내가 먹을 건 내가 벌어야 한다’가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벌 수 없을 때.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심각성이 뭐냐면, 오히려 30대 이상인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될 수 있고, 그게 큰 흠이 될 수 있지 않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현재의 청년여성에게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21년 말에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여성이 일과 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청년 여성들이 언제라도 이직할 준비를 하면서 현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청년 여성들은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이렇다 보니깐. 여기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선가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도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면, 계속 자기계발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이 몸에 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구직을 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리고 소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소모품으로 쓰여지면서 거기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소진감이 되게 크고. 그러면서 일을 일정한 이상 하고 나면 쉬어야 하는 거예요.” 쉬어야 하지만 끊임없이 일을 찾아야 하고,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업무강도의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짜여 있는 실업급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일하고 나면 쉬어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고, 또 되게 특이한 건, 27살 전에는 반드시 첫 취업을 해야 하고, 30살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이직을 맞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도태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27살이라는 나이 자체를 취업준비기간과 학업기간을 합쳐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거주비라든가 하는 고통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수도권)가 인프라가 많고 일자리가 많아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너무 힘들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수도권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싫다’, ‘힘들어’,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다. 일자리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똑같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다 떠날 수 있다. 좀 더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후에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의 팍팍한 생활에 지쳐 지방으로 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일자리를 따라 오간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회원이 많은 조직이다.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플랫폼노동의 장점으로 홍보되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운 시간 사용을 보장하는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누가 책임지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은 가사, 돌봄, 자녀양육 등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인터뷰할 때 ‘여기는 여자가 많은 직종이니까’ 이런 말을 하시길래, 왜 여자가 (여기에서)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쭙봤더니, ‘남자는 들어와도 몇 달 못 버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동조건을 남성은 안 견디는.. ‘못 견디다’고 표현하셨지만, 다른 기회들이 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노동조건을) 견디는 사람은 여성이고요. 그 이유는 한 측면에서는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주권과도 연결되는 거죠. 맨 처음에 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 ‘자유롭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아이 학교 간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정수기 코드’로 일하는 여성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여성들의 시간사용과 노동 선택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말했다. 여성들의 산재에 대해서도 현재의 인식과 제도 안에 포괄되지 않는 복잡한 현실을 본다고 했다.

“코드 같은 분들은 물리적으로 근력을 많이 써야 되고요. 생각보다 들고 다니는 장비도 되게 많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며 일해서 남성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더니, ‘아유, 우리가 다 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잠깐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들고 다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걸 한 번에 드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힘을 쓰는 노동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걸 못 받으시는 거죠. 여성의 질병이 굉장히 낮게, 저평가 되는 측면과 이 분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질병이기 때문에 무시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이 훨씬 더 조직된 힘이 적고, 그래서 더 주장하시기 어려운 게 같이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정수기 코드’처럼 특수고용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웹툰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감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여러가지 근골격계도 그렇고, 눈 질환, 굉장한 스트레스. 마감 안에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도 보상받거나 보호받지 못하죠. 그 경우는 저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쪽에서 몇 시간 일하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마감을 지키는 건데. 마감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언제 장시간 노동하라고 했냐’ 그러면 어려워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자발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이 늘면서 보호장치 없이 높은 노동강도와 심리적 압박 속에 일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청년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짚어주었다. 노동의 세계로 들어가서의 긴장과 함께 노동으로 진입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긴 한데, 뭐랄까. ‘노동을 내가 잘 하고 있나?’,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불안이 중첩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넓게는 청년여성들의 우울을 이야기할 때 직장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직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우울이나 불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산업재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우리가 방문한 여성 노동단체들은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 가운데 ‘여성이 직장에서 컵을 씻고, 밥을 하고, 상사의 식사주문을 하고, 잔심부름을 도맡는 등’ 성희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없지만 여성에게 행해지는 차별과 압력을 기존의 성희롱과 분리해서 ‘성차별적 괴롭힘’이라고 명명하고 있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렇게 설명했다. “직장 안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문화이고.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면 거기에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괴롭힘이고, 어떤 게 성차별인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거죠.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걸 명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에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직장 안에서 ‘나이 어린 여성’이 놓이는 여러 종류의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 노동단체들의 고민과 연결되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중대재해 사건이 많고,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교육 사업, 연대사업이 활발한 편이다. 노동, 산재 상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산재보험을 실제로 청구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의제기 같은 행정적 절차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현행 산재·직업병 인정기준에 맞추어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들, 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자리에 있는 이들이 산재 상담을 해 오는지, 산재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한 두 건 넣어서 산재를 인정받은 직종들은 다 배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근로복지공단) 기준은 많이 넣고, 많이 승인된 직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산재 신청 자체가 안 된 직종은 아예 다 배제됐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두 건 해서 두 건 다 되어서 승인을 높더라도 건수가 적은 직종은 배제되고.” 식당, 학교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중년여성들의 산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는, 중년여성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의 원인을 가사노동이나 나이 같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찾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한 것들을 찾을까? 이런 식의 적극적인 작업이 반영되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특히나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배제되고 있고, 계속 보호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성들이 하는 식당, 급식실 노동은 노동조합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현재 노동자들의 상태나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조직 정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연구가 이미 된. 그때 조리노동자들 관련 여론이 있을 때였는데도 굉장히 (산재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직종들이 한 두 개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하다면 연구를 하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직종도 (산재에) 반영해줘야 하는데.” 현행 산재 인정 기준이 ‘남성 육체노동자들의 노동’을 기준으로 삼기에 남성 노동자들보다는 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속 서서 일하거나 반복 작업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질환은 직업병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현행 산재·직업병 인정제도가 다수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직업병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산재신청을 할 기회가 없거나 수가 적은 노동자들의 산재, 직업병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에 대한 대책활동도 활발하고 노동조합 운동이 교섭력을 갖는 지역이기에 볼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당연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산재 인정기준이 무엇을 준거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되짚어 보게 하는 문제의식이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여성 법률인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다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노동문제이면서 해결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의하면, 30인 이하의 규모가 적은 기업은 자체 조사도 어렵고,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와의 격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으로 인해 생긴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기도 어렵고,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등의 실익이 없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여성노동자들은 상담비나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문제를 모두의 문제라고 일반화하거나 다수가 겪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노동은 수천, 수만가지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다만 아직 말하지 못한 노동, 드러나지 않는 노동, 목소리를 갖지 못한 노동을 더 찾으려고, 더 만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다. “라이더들의 노동상황에 대해서 누가 더 편하다 냐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열악한, 비정규직의 어떤 형태 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활동가 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이 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빠르게 사회 이슈가 되지 않는데, 남성이 노동형태의 어떤 당사자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조직화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청년이면 청년이어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남성 가장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라이더유니온이나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고, 확장되면서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큼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드러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02. 당사자의 목소리



앞서 살펴본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단체의 활동가가 아닌 회원 당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노동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에 소중한 자리였다.

먼저 **방송작가유니온**을 만났다. 방송작가유니온에 의하면 방송작가의 99.8%가 여성이라고 한다. 방송작가 유니온 조합원도 20~30대 여성이 다수이다. 방송작가들은 방송제작 외주 업체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없는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요구로 계약서작성 비율이 늘었다. 여전히 근로 계약보다 프리랜서 위탁계약서가 많기는 하지만 계약서 작성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한다. 연차가 낮은 작가들은 촬영구성안을 쓰는 일 뿐만 아니라 녹화 준비를 위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다. 출연자 의전, 주차권, 식사, 간식 준비 같은, 필요하지만 아무도 안 하려는 일들이다. 방송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잡일'을 한다는 의미로 '방송잡가'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다고도 전해준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테프지부**에서도 방송작가를 만났는데, 방송작가들의 작업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심리적 압박감 등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막내작가'라고 불리는 저연차 작가들의 높은 노동 강도와 심리적 압박감, 극한의 낮은 보수가 더해져 '막내작가'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방송작가들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앉아서 키보드를 치기 때문에 디스크, 손목질환 뿐만 아니라 "야간노동, 흡연, 항상 긴장해 있는 '온 콜' 상태... 섭외가 안 됐으면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하고, 쉼이 없다."는 것이다. 일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급자, 피디의 업무지시가 언제 올지 몰라 쉴 때도 긴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조합원 심리치료를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와 만난 방송작가유니온 활동가는 동료들이 부정출혈, 유산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밤샘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마니또**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전체 회원의 10% 정도 되는 여성회원이 거의 다 참석해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환경, 화학, 전기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이었다. 7명의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제조업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인재들이었기에 지역의 규모 있는 사업체들에 바로 취업하여 경력을 쌓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실습단계에서부터 여성을 무시하는 언행, 납득이 되지 않는 남녀 직무 구분 등 여성이라서 겪는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친구랑 같이 실습을 나갔는데, 일단 가자마자 들이 있는데 '우리 여자 안 뽑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가 일이나 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랬거든요."

"생산직은 왜 여자만 하는지도.. 화장품 공장, 제가 다녔던 곳도 화장품 공장이나 학교에 공문 내려왔던 약품회사나 이런 데 다 생산직만 모집하던데. 학교 공문 올라온 거 보면, 다 여자만 뽑더라고요. 남자도 가진 하는데, 또 남자들은 왜 힘쓰는 걸로 다 빼버리나 싶기도 하고. (힘쓰는 일을)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만 나누는 게 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선발이 되었지만 약속한 직무가 아니어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 회사에 일단은 취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생산직으로 일단은 투입이 되었어요. 근데 위쪽에서는 '이 일을 잘하면 사무랑

연결될 수 있다.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근데 결론은 계속 같은 공장 라인만 돌아가지고." 노동 강도가 높아 부서를 옮기거나,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회사를 나오기도 하였다. "2월부터 해서 제가 딱 악바리로 일년 버티고 퇴직금 받는다고 1년 버티고 나왔거든요. 그동안 4명 일을 혼자 다 하고, 부서도 원래 다른 쪽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한 3~4개월 동안 사장님이란 말을 직접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회사는 7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부사장이 끈대여 가지고. 차별도 많이 당하고, 육도 많이 먹었거든요. 퇴사 직전에는 저한테 일도 안 주고 해서. 그게 계약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버티자, 버티자 했다가 결국 '너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그 소리 듣고 퇴사 결심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이에게 대학을 가라고 훈계하거나, 혼자 하기에 과다한 업무를 지시하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항상 부사장이 '너 지금 놀 때 아니야', '너 지금 일하고 공부 해야 돼'(라고)",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뭐라 하지? 사업본부랑 개발본부가 있는데, 사업본부에 □□팀, ○○팀, 개발본부에 □□팀, ○○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디자인이 필요한 자료가 다 저한테 와요. 근데 디자인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디자인회사면 한 프로젝트를 몇 주에 해야 하는데, 저는 하루, 아니면 몇 시까지 이렇게 맡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안 좋은 건데, 대학 안 나왔다고 '대학 좀 가라', '디자인 역량 좀 키워라'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가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유일하게 전기, 전지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핵심적 업무를 하는 여성도 있었다. "제가 지금 납땜이나 용접이나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 환경 자체가 납땜하는데 환기(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구나 이런 거 쓰는데 다칠 때도 되게 많고, 쇼트가 나면 약간 (엄지손가락 가리키며) 여기가 되게 많이 잘렸었거든요. 완전 잘린 건 아니고, 상처가 많이 났었고. 충전기 같은 건 전기라서 터질 때가 많아요. PCB 안에 있는 부품들이 터질 때가 많은데, 그것도 되게 위험하고." 그러나 직급도 임금도 최저 상태라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일하면 외근이 좀 많아요. 근데 외근을 나가면 외근 가는 날마다 더 돈을 줘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명은 사장 아들이고, 한 명은 대졸이란 이유로 주임으로 들어왔고요. 제 밑으로 두 분이 들어오신 건데, 이 두 분은 (외근이 많은) 그쪽에 있어서 저보다 급여가 높아요. 대졸이기도 하고. 결국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이 회사에 통틀어서 (제가) 가장 급여가 적기도 하고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도 뜻하지 않게 청년여성들을 만났다. 여성노동자회는 보통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모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청년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은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성들을 불러주었다. "우리 전라북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90%가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작은 사업장이 많고, 저도 자체적으로 본다면 전북이 농업이 되게 세더라고요. 종사자도 되게 많고요.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많은 편입니다. 관광도 있고요. 전라북도의 특성이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돌봄 서비스 쪽으로도 있고요. 젊은 분들이 갈 데가 일단 없어서 계속 여기서 고민이.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 이걸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도 이쪽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 있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노동단체의 고민은 앞서, 서울에서 만난 단체의 고민과 다른 지역만의 경제사정, 일자리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2022년 하반기, 20대 여성 활동가들을 채용하여 상담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전북여성노동자회 활동가를 비롯하여, 전주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부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 둘이 더 참석하였다. 10년을 일했지만 여성은 승진이 안 되던 대형인쇄소의 편집디자인실을 그만두고 활동가가 된 이, 식당알바, 공장알바, 워킹홀리데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찾아 수도권부터 외국까지 돌고는 고향 전주로 돌아와 활동가가 된 여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편의점 알바, 식당알바를 뛰며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충당하는 여성활동가. 이들의 이야기는,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제시해 주었다.

이들이 들려준 자신들의 노동 이력의 일부를 들여보자. "19살 때부터 인력소개소 같은 데 가서 봉고차 타고 하루씩 일하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조업 말고, 그냥 식당에 하루 비는 날 가서 빵꾸 채우고, 불판 조그려서 닦고. 심지어 그때 일하다 다쳤어요. 뜨거운 물 주전자를 제 발등에 붓고. 누룽지에다 붓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주전자에 넘치게 채워 놔서 들고가다 제 발등에 붓고, 화상 입었는데, 일하다 다친 거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공장도 가보고, 워홀도 가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편의점도 거의 최저 맞춰주는 데 없고, 서울은 그래도 최저는 주려고 하는데, 전주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 좋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간 근속을 해도 그에 맞는 임금인상이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10년 정도 일했으면 임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혀 맞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상사나 부장 이상은 다 남자였는데, 그분들이 항상 '여자들은 너무 빨리 그만두고, 일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13, 15년 차인데. 모여서 '여자들이 빨리 그만둔다고?' 그러는 거죠. (웃음) 15년을 일한 사람이 있어도,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있어서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과 알바를 병행하는 활동가도 있었다. 그는 대학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드물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곳이지만 알바들이 도망갈 만큼 노동 강도가 셨다고 한다. 그가 버틴 건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 생활비, 치료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기숙사 옆에 있는 편의점이었고, 시간대가 야간이었어요. 기숙사 점호하고 학생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밤샘

과제를 하는 학생들까지 오는 거죠. 그 와중에 계산줄이 정말 쪽 차서 코너를 들었어요. 코너를 도는 경우도 거의 매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산 다 하고, 당연히 야간에 해야 하는 청소 업무도 하고, 재고를 채워 넣고, 그런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보다 더 컸으면 오실 분이 제쳤을 것 같지만, 대부분 도망가셨어요. 저보다 현명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전주에는 예상치 못한 활력이 있었다. 청년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이 여성 관련 활동을 경험하고 싶어 서울로 가고, SNS를 통해서 소통할 때,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모인 전북여성 노동자회 회의실은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 안에서, 직장의 위계 안에서 딸로, 여성으로 겪는 일을 이야기하면서는 여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가족제도와 변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 답답함은 안산에서 만난 이들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앞서 안산 마니또에서 만난 이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였다고 한다. “커피 타오라 해서 타 갔어요. 약도 챙겨드리고. 아니 저희 팀장님이 (저더러) 대표님이랑 부사장님 건강 비타민이랑 약즙, 그걸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챙겨드리래요. 마시는 걸 다 보고 가지고 오래요. 저는 다 마실 때까지 이려고 기다리고 있죠.” 엄마, 할머니 같은 여성 가족구성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기껏 할 수 있는 게, 가족들도 아직까지 다 일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할머니마저 일하셨는데 최근까지도 보면 청소, 생산직 그런 것들? 직접 가족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경제적 불안 역시 공기처럼 주변을 감싸고 있다. “숨 쉬는 것마저 돈이야.” “누워만 있어도 돈 나가는데.” 20대 초반,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때부터 치면 이미 수년 째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안산에서 전주에서 만난 이들은 조직 위계의 하층에서 겪는 일에 좌절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처세 하고 대응하고 있었다. 일을 쓴 적이 없지만, 조직의 보상은 적거나 없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노동자들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은 함께 할 사람, 연대할 사람을 찾아 더 넓은 곳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들이기도 했다.





II.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1. 전체 신청자 통계

2. 최종 지원 대상자 분석

Part. II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본 사업은 청년여성의 노동환경 및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청년여성이 노동 과정에서 생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청년여성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2장에서는 사업에 지원한 청년여성 400명의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통계와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0명의 사전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청년여성은 나이와 성별에서 비롯된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웠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잡일을 떠맡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여성에게 차별적인 대우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여성은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본인의 업무 외 추가 노동을 선택하여 '능력을 증명'하거나 '인정'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또한, 반복적인 노동에서 비롯된 근골격계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성희롱 등 성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뒤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구 내에서 부모, 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생활비를 보조하며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여성도 상당수 있었다.

보통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사회적 취약성이 노동시장에 들어가 증폭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사회문화적 토대가 청년여성이 건강하게 일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일하다가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청년여성 스스로 문제를 감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청년여성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산업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지원사업에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여성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산업재해'로 정의하게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정이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여성 스스로 자신이 겪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며 현실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만난 청년 여성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청년여성이 겪는 문제를 확인하고, 청년여성이 건강하게 일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더 많은, 여성들의 노동 이야기가 필요하다.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친 청년여성이라면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청년여성이라면”

지원대상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청년여성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람 중 다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2022년 7월 7일 기준 1980~1999년생 여성(2022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하면서 발생한 산재(질병)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치료, 재활 비용, 자존감,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원 (1회)
▶ 신청비용 별도 (신청비 지원 가능함)

신청기간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 ~ 9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아래 링크 및 QR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https://www.northeast.or.kr>, <https://www.northeast.or.kr>

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진행일정

신청서 제출	신청내용 확인	심사 회의	결과 발표	준비서류 제출	회계장비 지급
9/7 - 9/30	9/7 - 10/7	10월 중	10/7	10/7 - 10/31	10월 말

▶ 최종 선정된 50명 분은 홈페이지(www.northeast.or.kr)에서 신청서 접수처를 확인하십시오.

Q&A

Q: 어떤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업 제한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노동건강연대
02) 469-3376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laborhealth.act@gmail.com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노동건강연대

Part. II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01. 전체 신청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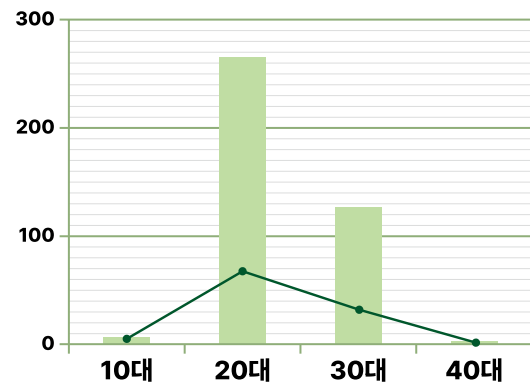


노동건강연대는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청년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주간 신청자를 모집했다.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여성'이 대상인 만큼 기존과는 다르게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했다. 모집 기간 내내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총 400명이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처음에 느낀 당혹감은 이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변했다. 본인이 겪는 건강 문제가 자신이 하는 '일'과 어떻게든 연관되었다고 생각한 청년여성이 사업에 신청했으니, 이들의 신청서를 들여다보면 어떤 청년여성이 일하다가 건강 문제를 겪는지, 왜 산재보험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터였다. 엄밀한 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신청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통계를 가지고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1) 인구학적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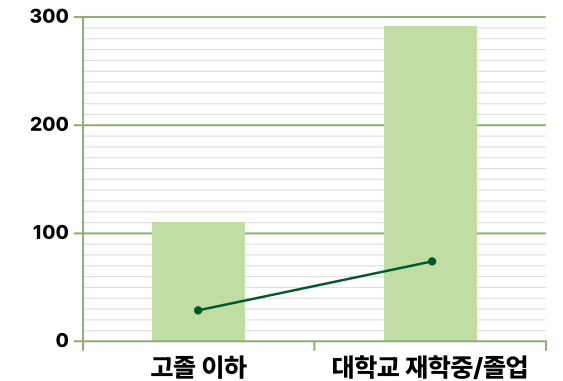
전체 신청자 400명을 나이로 구분해보았을 때, 20대 신청자가 266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27명(31.8%)를 차지했다. 신청 자격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여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대가 비교적 균형 있게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이	인원 (명)	비율 (%)
10대	6	1.5%
20대	266	66.5%
30대	127	31.8%
40대	1	0.3%
합계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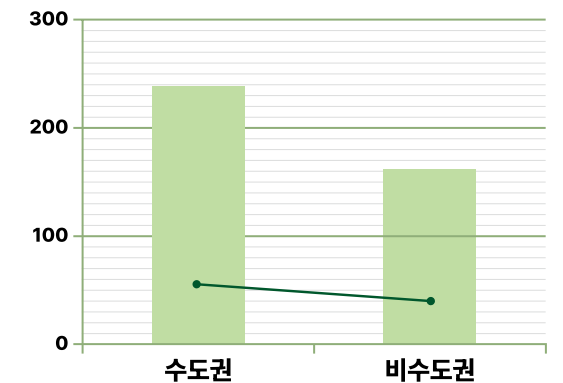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과 '나머지'로 구분하여,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와 대학교 졸업자를 나머지로 묶었다. 최종학력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포함된다. 이 경우, 본 사업에서 확인하고자 한 '고졸 취업 청년여성'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택 항목을 나누었다. 그 결과, 신청자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291명(72.8%),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109명(27.3%)으로 나타났다.

학력	인원 (명)	비율 (%)
고졸 이하	109	27.3%
대학교 재학중/졸업	291	72.8%
합계	400	



거주지의 경우,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 지역으로 정의했을 때,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신청자가 239명(59.8%), 비수도권에 사는 신청자는 161명(40.3%)이었다.

학력	인원 (명)	비율 (%)
수도권	239	59.8%
비수도권	161	40.3%
합계	400	



2)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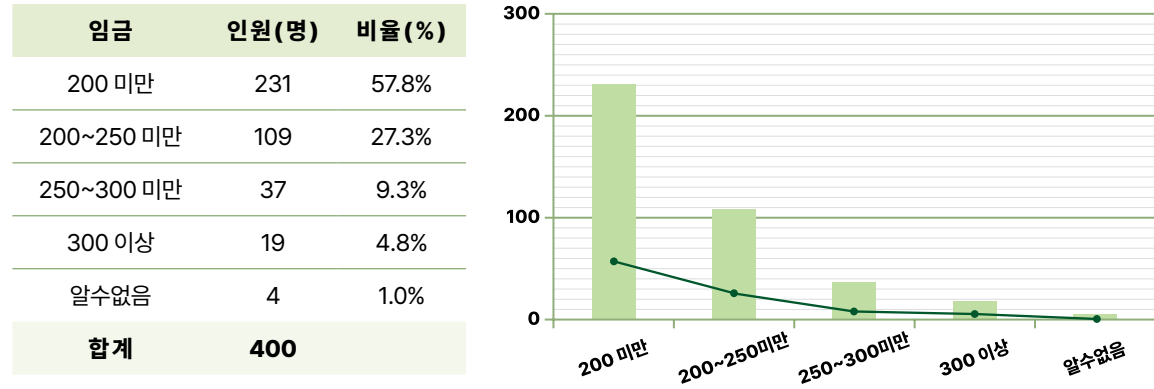
1인 자영업자	CS상담원	HW개발	VIP코디네이터 (의전)	가구영업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감자탕 알바	개발자	거리예술가	건물관리실	건설회사 경리직
건축설계사 사무직	게임회사 고객센터 상담원	게임 디자이너	경리 사무직	경영지원	고객센터 상담
고객응대	공공기관 계약직	공공기관 사무직	공연	공연예술종사자	공연 기획자
공장	공장 현장직	공장 생산직	구청 자활	국회 보좌진	국회의원 인턴비서
군인	금융업 창구	기간제 공무원	기업 홍보	기획·홍보 사무	꽃집 직원
네일샵	네일샵 운영	네일아티스트	눈썹매장 알바	뉴딜일자리	도서관 구내식당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대학 교직원	대학 기숙사 조교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도서관 사서	도예공방
도자기 제작	도장 사범	동물병원 간호사	동물보건사	디자이너	레스토랑 직원
렌트카 세차	마트 계산원	메뉴 개발	모니터링 재택업무	무역 사무직	문화기획 코디네이터
문화예술기획자	물류센터 상하차	물리치료사	뮤지컬 스태프	미술 강사	미용사
바리스타	박물관 안내원	반도체 회사 사무직	반려동물 마케팅	발달장애아동치료	방과후 강사
방사선사	방송 및 콘텐츠 구성작가	방송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작가	배달음식점 알바	번역
법률사무원	보험설계사	복지도우미	대학병원 안내업무	빵집 알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사무보조 파견	사무직	사진 보조알바	사회복지사	상담원	생산부서 사무직
생산직	생산직 알바	서빙	선거노동자	성폭력 상담원	세무사무실 사무직
수영강사	숫불닭갈비 전문점	시민단체 활동가	식당 알바	식당 홀서빙	신경계 물리치료사
떡볶이집 알바	심리상담사	아동미술학원 알바	아동심리치료	아웃렛 매장 직원	아이스크림 매장
아웃백	애견훈련사	애견미용사	애견의류 제작	앱 개발	어린이 체육교육
어린이집 교사	어학원 강사	언어치료사	에디터	엔지니어	연구 및 행정직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을 통해 청년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나누지 않고, 신청자가 쓴 용어 그대로 옮겨 나열해보았다. 아래 열거된 내용을 쭉 훑어보면, 청년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연구원	연극 조연출	영상 제작	영상편집	영양사	영어강사
영화 시나리오 창작	영화관 알바	영화미술팀	예술계 홍보기획팀	온라인 마케터	온라인 쇼핑몰 관리
온라인 판매	와인판매	요가 강사	요리	요양원 시설장	요양원 조리사
워터파크 알바	웨딩홀 아르바이트	웹기획자	웹디자이너	유치원교사	음악 감상실 알바
의류벤더 수출구매	인터넷 쇼핑몰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형탈 공연	일러스트레이터	일용직
입시체육학원 알바	자동차 전시장 리셉션	자영업 (디지털카페)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유학년 시간제 강사	자전거 정비 및 판매
작가 어시스턴트	작업치료사	잡지사 취재기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시 작품제작	제과점 주방
제과제빵사	제약회사	제조업 알바	제품판매 및 고객 응대 서비스업	조교	주방 보조
주방 요리사	책방	책 편집	철골QC	청소년 지도사	체험학습관 해설사
초등학교 교사	출판사 교정직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킨집 아르바이트	카페
카페 매니저	카페 바리스타	카페 알바	카페 직원	캐셔	콘텐츠 개발직
콘텐츠 마케터	콜센터	키오스크 조립	택배 일용직	택배 알바	통신사 고객센터
통신업 대리점 업무 지원	판매직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패스트푸드점 알바	펀드레이저	편의점 알바
편집 디자이너	프랜차이즈 카페 슈퍼바이저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리랜서 강사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피씨방 알바	피트니스 영업	필라테스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한의원관리사
항공부품업체 QC	핸드폰 대리점	행정업무	헤어 스타일리스트	호텔 카운터	홈패션디자이너
화상영어강사	화장품 검수	화장품 판매	회계사무실 사무원	회사원	

3) 임금

신청자에게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사업장'(이하 '재해 당시 사업장'¹⁾)에서 받았던 월 임금을 확인한 결과, 2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31명(57.8%)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뒤를 이어 2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109명(27.3%), 300만 원 미만 37명(9.3%), 300만 원 이상 19명(4.8%)이었다.



* 월 임금의 경우, 만 원 단위에서 절사. 최대값과 최소값을 병기한 신청자의 경우 최소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주목할 만한 점은, 재해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에 자리한 사업장에서 일한 신청자의 임금 중위값은 2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비수도권은 170만 원에 불과했다. 직종·고용형태·노동시간이 제각기였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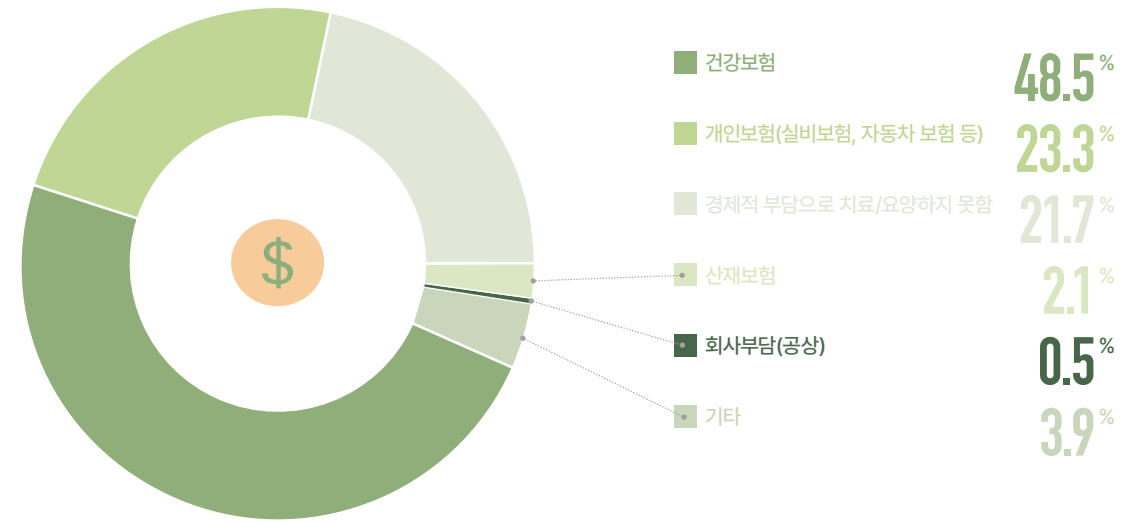
비수도권의 대졸 상용직 노동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첫 직장 임금 대비 최대 10.3%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최충 등 3인, 한국노동경제학회지, 2019)로 미루어 보아도,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여성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신청자 19명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여성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처럼 '괜찮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여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¹⁾ 본래 '재해 당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재해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가 재해를 겪은 당시 일하고 있던 사업장'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재해'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여, 청년여성이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자체를 산업재해로 보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사업장을 '재해 당시 사업장'으로 지칭하였음.

4) 치료비 부담 방법

치료/요양비 부담 방법 (중복 응답)	인원(명)	비율(%)
건강보험	283	48.5%
개인보험(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등)	136	23.3%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요양하지 못함	127	21.7%
산재보험	12	2.1%
회사부담(공상)	3	0.5%
기타	23	3.9%
총 응답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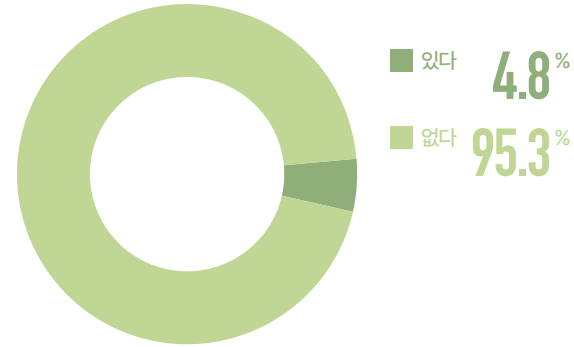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일하는 청년여성인데도,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요양비를 부담하는 방법은 비슷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400명에게 본인이 치료·요양비를 부담한 방법을 표시(중복 응답 가능)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 수 584개 가운데 '건강보험'이 48.5%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실비보험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1.7%, 산재보험을 통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은 2.1%, 단 12명에 불과했다. 청년여성이 산재보험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보장받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청년여성이 일 때문에 겪는 건강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5) 산재신청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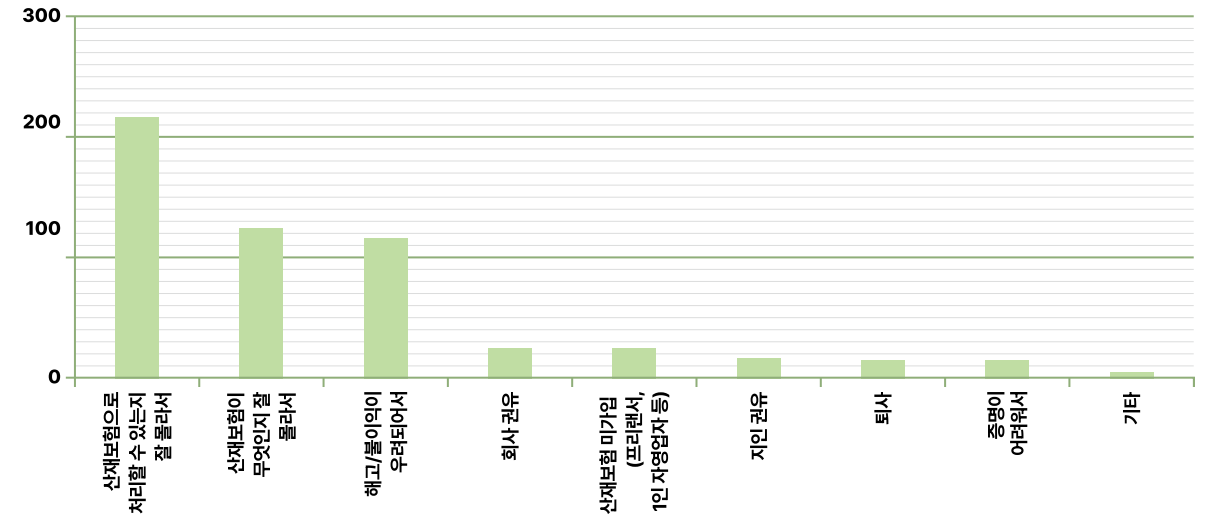
신청자 400명 중에서 산재 신청을 해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9명(4.8%)이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신청자 가운데, '산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24명 있었으나, 여전히 아주 적은 수의 청년여성만 산재신청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재신청여부	인원(명)	비율(%)
있음	19	4.8%
없음	381	95.3%
합계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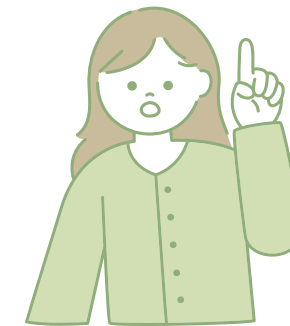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신청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자신의 불건강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여성이 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두 선택해달라고 한 결과, 총 551개의 응답 중 가장 큰 이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39.2%)였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22.5%), '해고·불이익 우려'(21.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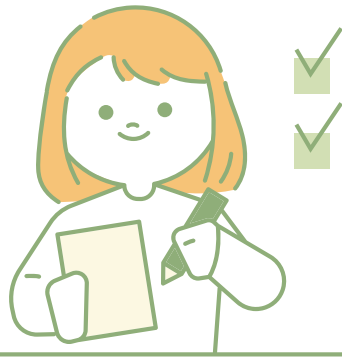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복 응답)	응답 수(명)	비율(%)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216	39.2%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124	22.5%
해고/불이익이 우려되어서	117	21.2%
회사 권유	23	4.2%
산재보험 미가입(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23	4.2%
지인 권유	16	2.9%
퇴사	14	2.5%
증명이 어려워서	14	2.5%
기타	4	0.7%
총 응답	551	100%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의 무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화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하며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이들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도 산재가 되는지 몰라서', '일용직 이라서 산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고가 난 건 아니어서',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중량물 작업을 한 건 아니라서' 등이 라고 답했다. 모두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청년여성들이 일하다가 생긴 건강 문제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고·중대재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 보상 체계에 있는 셈이다.



02. 최종 지원 대상자 분석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번 산재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총 400명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의 규모는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두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신청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탈락자도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400명 중에서 '지원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누가 보아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으려 심사표를 거듭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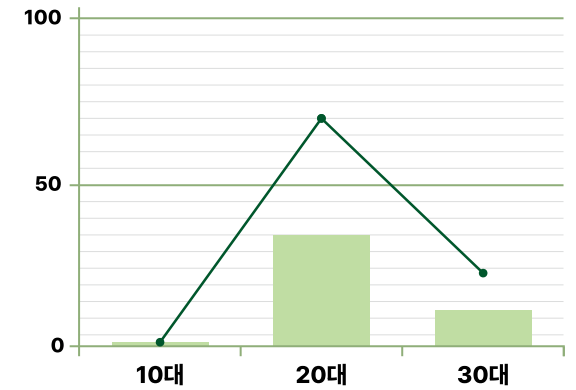
심사는 '객관지표 점수'와 '질적심사 점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객관지표에서는 △치료·요양비 부담방법, △부상·질환 심각성, △고용불안정성, △최종학력, △지역, △부양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질적심사는 '사전인터뷰'와 '심사위원회 평가'로 나누어, 객관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사전인터뷰에서는 △요양상황, △직업불안정성, △경제적 지원상황 등을 주로 보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자가 적은 병명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한 회의감이 우려의 목소리가 되어 나오기도 했지만,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와 절차로 진행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 50명을 선정하였다.

1) 비수도권, 고졸 청년여성에게 더해지는 차별

최종 지원 대상자 50명을 나이로 보면, 20대 지원 대상자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0%를 차지했고, 30대 14명(28%), 10대 1명(2%) 순이었다.

나이	인원(명)	비율(%)
10대	1	2%
20대	35	70%
30대	1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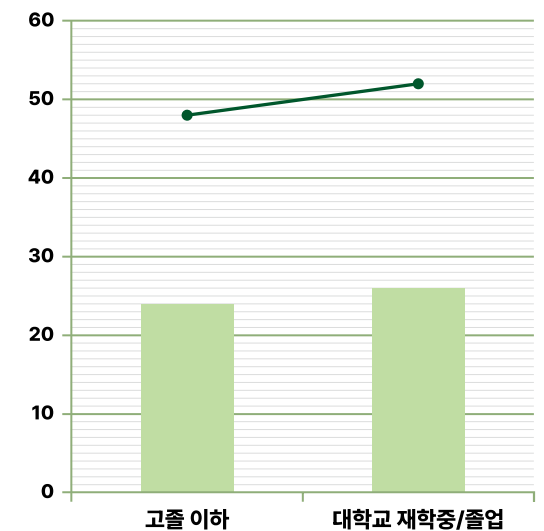


같은 '청년여성'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자본, 가정상황, 학력, 직종에 따라 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모습과 크기가 달라진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비수도권 거주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데에 염두를 두었다. 그 결과, 최종 지원 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이 24명(48%), '대학교 재학중·졸업자'인 사람이 26명(52%)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여성의 경우, '고졸'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직장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겪는 것을 사전인터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취업한 청년여성은 직장에서 '가장 어린 여직원'이 되기 때문에 취약성이 중첩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거나, 저평가 당했고, 대학에 진학할 것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권유했으며, 연봉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학력	인원(명)	비율(%)
고졸 이하	24	48%
대학교 재학중/졸업	2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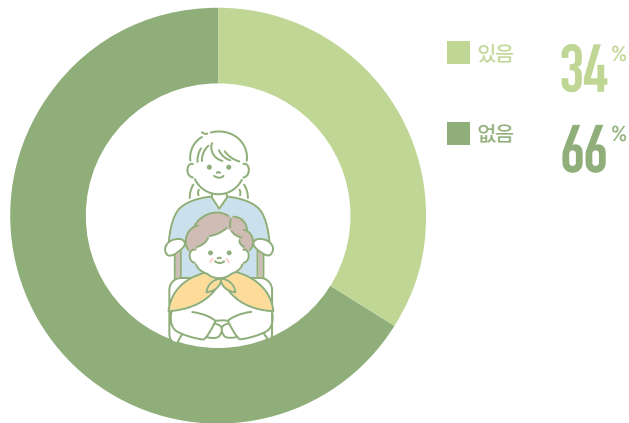
거주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사람이 32명(64%),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18명(36%)이었다. 지역별로 세세하게 분류해보면, 서울 거주자가 16명으로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충북·경남·광주에서 각각 3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여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직장 내 문화나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도움을 받을 지원 기관이나 단체를 찾기 힘들었다.

나 이	인 원(명)	비 율(%)	나 이	인 원(명)	비 율(%)	나 이	인 원(명)	비 율(%)
수도권	32	64%	서울	16	32%	경남	3	6%
비수도권	18	36%	경기	11	22%	경북	2	4%
합 계	50		인천	5	10%	광주	3	6%
			강원	2	4%	부산	2	4%
			충남	1	2%	울산	1	2%
			충북	3	6%	제주	0	0%
			전남	0	0%	대전	1	2%
			전북	0	0%			

2) 자녀 또는 부모... 부양 부담 짚어진 청년여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최종 지원 대상자 가운데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사업에서는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구 생활비 일체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부양 부담'으로 보았는데, 전체 지원 대상자 50명 가운데 17명(34%)이 부양 부담을 지고 있었다. 부양 대상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다양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4명,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이었다.

부양가족 유무	인 원(명)	비 율(%)
있음	17	34%
없음	33	66%



가구 내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부양 부담 외에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는 등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양 부담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였다.

3) 질병: 근골격계질환부터 정신질환까지

여성은 신체 부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지원 대상자 50명 가운데 상병명에 근골격계질환을 적은 사람이 33명(66.0%)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골·디스크 파열이나 골절을 겪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닌 다른 노동형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며 오래 걸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동을 지도하느라 낮은 책상에 맞추어 장시간 허리를 숙이고 일해야 하는 아동미술학원 강사,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푸는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 종일 서서 관람객을 안내해야 하는 해설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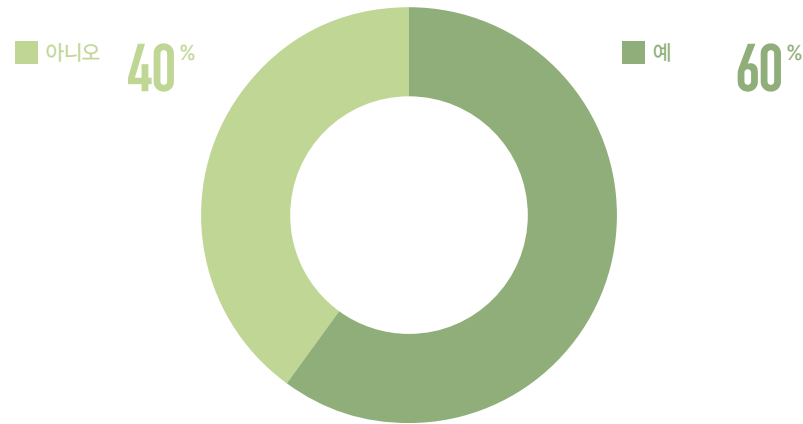
청년여성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음을 증명하듯, 정신질환을 호소한 비율도 높았다. 상병명에 정신질환을 1개 이상 적은 사람이 최종지원대상자 50명 중에선 6명(12.0%),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체 400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땐 139명(34.8%)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심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자 대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만큼, 청년여성의 정신건강과 일하는 환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동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청년여성의 '불건강'에는 차도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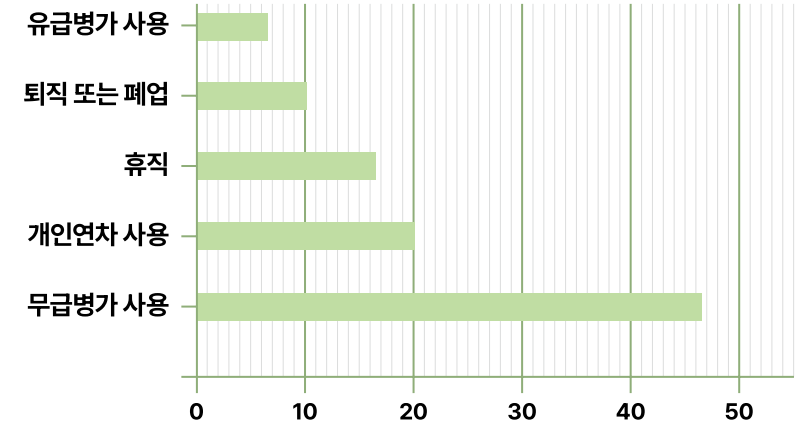
4) 40%,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지원 대상자에게 모든 노동경력을 통틀어서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쉬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20명(40%)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쉰 적이 있다고 말한 30명에게 어떤 형태로 쉬었는지 확인해보니, 대부분 '무급 병가 (46.6%)'로 쉬었다고 응답했다. '개인연차'를 사용했다는 사람이 6명(20%), 휴직했다는 사람이 5명(16.7%), 퇴직 또는 폐업한 사람이 3명(10%)였다. 유급병가로 쉬었다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일 때문에 아픈 몸을 회복하려면 무급 병가나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하다가 몸이 아플 때, 쉬어본 적이 있나요?	응답 수(명)	비율(%)
예,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30	60%
아니오,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20	40%



어떤 형태로 일을 쉬었나요?	응답 수(명)	비율(%)
무급병가 사용	14	46.6%
개인 연차 사용	6	20%
휴직	5	16.7%
퇴직 또는 폐업	3	10%
유급병가 사용	2	6.7%



아플 때 병가나 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이유를 모두 선택해달라고 한 결과, '병가/휴직 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3.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직장에 병가/휴직 제도가 없어서'였고, 공동 3위는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병가/휴직을 사용할 만큼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였다. 기타 이유로는 '금전적 문제', '쉬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없어서', '시급제 알바라 일하지 않으면 다음달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병가/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복수 응답)	응답 수(명)	비율(%)
병가/휴직 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24	33.3%
병가/휴직 제도가 없어서	20	27.7%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9	12.5%
병가/휴직을 사용할 만큼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9	12.5%
병가/휴직을 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해서	2	2.7%
기타 경제적 문제, 대타를 구하지 못해서, 참으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쉬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없어서,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등...	8	11.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박지순, 2022)를 보아도, 2020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12.9%만이 병가제도를 도입했다. 병가제도가 있더라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들처럼 '눈치가 보여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한국사회는 '일하다가 아프면 쉰다'라는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장 연차가 낮고, 나이가 어린 청년여성 노동자는 일 때문에 몸이 아파도 상대적으로 더욱 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5) 일하다 건강이 나빠지면? 30%는 직장을 잃었다

앞서 언급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 고용상태에도 변화가 생긴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아프게 되었을 때, 사내에 병가·휴직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작동한다면, 충분히 쉬어 건강을 회복한 뒤에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 회복비를 지원한 50명의 청년여성 중,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무직 상태가 된 사람이 15명(30.0%)에 달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뒤 오롯이 혼자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해 당시			재해 당시		
고용형태	인원(명)	비율(%)	고용형태	인원(명)	비율(%)
정규직	13	26%	정규직	6	12%
아르바이트	16	32%	아르바이트	10	20%
계약직	6	12%	계약직	4	8%
일용직	2	4%	일용직	0	0%
파견	2	4%	파견	2	4%
용역	1	2%	용역	1	2%
무기계약직	0	0%	무기계약직	1	2%
프리랜서	7	14%	프리랜서	7	14%
1인 자영업	3	6%	1인 자영업	4	8%
합 계	50		합 계	35	

또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해 당시와 그 이후(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용형태 중 정규직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재해 이후 새롭게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없었으므로, 정규직 노동자 13명 중 단 6명만이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 노동자여도 일하다 다쳤을 때 직장을 잃거나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계약직이나 파견·용역 등 다른 불안정 고용형태로 일하는 청년여성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III. 심층인터뷰 :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Part. III

심층인터뷰: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Part. III 심층인터뷰: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

01. 심층면접 개요

심층면접은 첫째, 청년여성노동자의 노동과 건강 문제, 둘째, 청년여성 산재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지원이 확정된 50인 중 산재보험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 이들이 왜 업무상 손상과 질병에도 산재보험을 이용 안/못 하였는지 등 개인적·조직적·제도적 장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청년여성노동자의 노동과 건강 문제, 산재보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비롯해 청년여성노동자의 산재 유형 혹은 특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면접 참여자는 노동력과 건강문제 유형, 산재보험 이용여부 등, 지역, 학력 등에 따라 선정되었다. 면접 참여에 동의한 11명을 일대일 심층면접하였다.



02. 심층면접 결과

1) 청년여성의 일 경험

① 생계형 노동: 저임금 불안정 노동

면접참여자들은 청소년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이나 공장의 생산직으로 일한 이들도 있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도 있다. 또한 중학교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하였던 사람들은 전단지 배부/붙이기,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패밀리레스토랑, 카페, 와인샵, 패스트푸드나 아이스크림 가게의 홀서빙 및 판매직, 편의점 점원, PC방 점원, 콜센터 상담원, 택배배송용 의류포장 아르바이트, 박물관 전시 스태프, 전시관 해설사, 학원(태권도, 미술) 강사, 수영 강사, 청소원, 쇼핑물 보안요원, 시민단체 상근자, 음식배달 라이더, 물류센터 상하차, 애견훈련사, 배우, 회사 인턴, 초등학교와 지역돌봄센터의 보조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였다. 대부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다. "돈이 필요"해서 대학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기간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면접참여자 4의 경험처럼, 대부분 면접참여자는 근무지와 하는 일은 바뀔지라도, 쉬지 않고 임금노동을 하였다.



면접참여자 4

돈을 벌어야 해서요. 저는 시험 기간에도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면 안 되겠다는 게 너무 확실해서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겠다 싶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요즘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원금 갚아야 하고요. (알바를) 많이 한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웃음)

면접참여자들 중 잔업과 추가근무가 잦은 일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러 개의 일을 하는 'N잡러'이다. 흔히 N잡러는 본업 외에도 부업 및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라 여겨지지만, 이들이 동시에 두세가지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면접참여자 7은 속기사로 일하지만 실수령액이 적기에 퇴근 후와 주말에 와인샵에서 일하였다. 면접참여자 11은 대학을 다니며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며, 베이비페어 스태프이나 강의 보조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면접참여자 4는 초등학교실 보조교사로 일하며 하루 2시간 스터디 카페의 청소와 비품 채우는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였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기 때문에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다.



면접참여자 4

일 경험은 조금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20살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빙 알바는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 하고, 베이비 페어 같은 데서 알바도 하고, 카페에서도 꽤 오래 일했었고, 박물관 전시 스태프, 교수님들 강의하는 데 보조 강사 들어가고, 전화 안내하는 알바도 하고. 대략 이 정도 있어요. 알바하면서도 틈 나면 (다른) 알바 하고요. 제가 예술계열 학과라서 재료비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해서 알바를 많이 했고요,

이들은 연령, 경력, 성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특히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불안정성 증가는 저임금, 낮은 고용 안정성, 사회보장의 배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이들의 일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다.

실업급여도 안 됐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저녁에는 4대보험이 안 되는데, 오전 4시간짜리는 4대보험이 돼요. (급여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청소 일을 했는데, 그때는 4대보험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입을) 빨리해야 되는 기간이 3년인가 있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4대보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그걸 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해달라고 한 거예요.



면접참여자 5

◎ '나이 어린 여성'으로 일하기

면접참여자들은 '나이 어린 여성'으로 일하며 상사와 고용주와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고졸 청년 여성들은 일터에서 겪는 무시와 모멸감으로 인해 차별적 시선과 낙인을 경험한다. 면접참여자 1은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 자신에게 고졸 청년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유를 가정환경과 부모의 능력 때문이라 하는 고용주의 말을 들으며 일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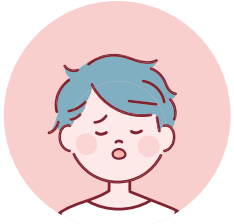


면접참여자 1

인턴십 할 때, 사장님께서 주입식으로 '너 대학 가야 된다', '너 대학 안 가면 뭐 할래'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자격증 이거 따라, 저거 해라. 아니 일은 엄청 많이 시키면서 뭘 계속하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중략) 근데 사장님이 한번 '니네 엄마랑 아빠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네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식당 다닐 때도 몇 번 들었었거든요. "너네 엄마 아빠가 좀 덜 떨어져서, 네가 그런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고요. 그게 선을 넘는 거잖아요.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무직이나 인턴으로 일하였던 면접참여자들은 계약 연장과 업무 고과 평가 등의 이유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신입에게 숙련 형성의 기회를 준다거나 직장에 헌신적이거나 일에 열정을 보여야 한다며 이유로 상사의 업무를 시키거나, 청소를 "나이 어린 여성"이 할 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다.

저만 청소하고 있고요. 수영장 키판에 이끼 같은 게 끼니까 락스 풀고, 솔로 문지르고. 40 넘은 과장님이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깐, 어쩔 수 없죠. 근데 자꾸 (과장님이) 락스를 걸더라고요. 물 뿌리고 청소하라고. 아이들 쓰는 공간, 키즈룸은 저희(여자 강사)가 청소했는데, 남자 탈의실까지 제가 청소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여자) 샤워실은 제가 씻고 나오면서 더러운 곳 있으면 락스로 한 번 문지르고, 물 한번 던지고 나오고, 머리카락도 수시로 치우고요.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상담 전화를 하거나, 과장님 지시가 내려오는 일을 해요. 제가 일을 찾아서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청소 관련해서 말하는 거죠.



면접참여자 3



면접참여자 2

막내니까 당연하게 심부름도 해야 하고, 뭐든지 다 솔선수범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음식도 제가 다 선정하고, 투표하고, 음식점 가서 포장해 오고, 세팅해 드려요. 커피 드시고 싶은 거 종이에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사서, 다 들고 오고요.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날마다 탕비실 같은데 기본 세팅을 해놔야 해요. 암묵적으로 제 일인 거죠. 그걸 따지면 회사를 못 다니니까, "네" 하는 거죠. 회사에 다니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참고 해야 하는 거니까요. 업무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해야지, 막내가 해야지, 막내 뭐 하니? 이런 분위기.



면접참여자 10

홍보물이 진짜 많아요. 외주로 안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요. 제가 처음에 한두 번 만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하니깐 감각이 있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하나씩 주기 시작하다가, 옆 부서 대리님도 자기 부서 일인데 "자기가 해야 예쁘더라고~"하면서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거절 못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못 하겠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못하겠다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에 정말 용기 내서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대리님이 부탁하신 거) 못하겠다"고 했더니. "(상냥하게) 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몇몇 면접참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된 경험을 이야기한다. 요식업이나 학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들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인턴처럼 일을 시작한다. 분명 노동자이지만, 이 직종에서 일하며 숙련 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4대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게 한다.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일년까지 일하였지만,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태도를 경험하며 일터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면접참여자 11

알바하던 미술학원에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먼저 러브콜을 주셔서, '전임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니까 믿고 갔던 건데, 한두 번씩 4대 보험 얘기 꺼낼 때마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3.3% 때는 프리랜서로 해서 하자. 보통 다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오래 일할 거면 4대 보험을 드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점심 저녁) 밥을 못 먹고 일해야 하고, 야근도 점점 많아지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래 다니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어요.

사무직에서 일한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많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지적인 바처럼, 면접참여자 2는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학력으로 인해 저평가되는 현실뿐 아니라, 업무 내용, 숙련 형성 기회, 임금, 승진 기회 등 노동과정에서 차별은 숙련 축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면접참여자 2

저는 여러 회사에 다녔어요. 계약직도 해보고, 정규직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고졸에 대한 차별. 애는 영어를 못할 것이다, 애는 외국어를 못할 것이다,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외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외국어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런 시선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고졸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 보면, 고졸이 승진하는 루트가 따로 있고, 대졸이 승진하는 루트가 따로 있어요. 기간도 다르고, 직함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아예 대놓고 표시가 나오. 일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중요한 업무를 안 맡긴다거나요. (고졸) 애는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기는 해요.

면접참여자들은 모두 직장 동료나 상사, 고객과 같은 일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해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었다. 11명 중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 스토킹을 신고한 이는 1명 밖에 없었다. 면접참여자 1은 커피숍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매일 같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성희롱을 겪어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그만둔 뒤 매니저는 '그 고객이 너랑 친한 사람인양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말하며 안부를 걱정했다고 한다. 면접참여자 1은 매니저 역시 고객의 성희롱과 스토킹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하였다. 면접참여자 1은 당시 자신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자 "별거 아닌 거로 신고한다"는 편견을 겪을까, 면접참여자 7은 실습과 인턴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할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고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면접참여자 1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었는데요. 약간 이상한 분이 오셨었어요. 매일 매일. 남자분이셨는데, 나이대는 서른 초 중반? (보통)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한 뼘 거리로) 가까이해서 이 메뉴 저 메뉴 물어보고, 카드 줄 때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서. 처음에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는 20살이었고,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잡으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카드를 떨어뜨렸거든요. 거기서 그분은 약간 이상함을 느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다음날에 또 오셔서 매번 (결제할 때마다) 손잡고. 한번은 음료 나오는 동안 계산대에 이렇게 팔 놓고 (저를) 계속 쳐다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신고하고 싶었는데, 괜히 또 신고했다가 '별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참았거든요.

한편으로 그 회사가 학교와 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제가 분란을 만들면 학교 후배들이 현장 실습할 기회를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 만들지 말자. 어차피 나는 여기서 10개월인데.' 하더라고요. 제가 편집하고 나면 성희롱하시던 그분이 검토 하면서 "너 일 잘한다"라고 칭찬하면서 제 엉덩이를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왜 나 내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리코트를 싸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신청했더니, 신청 명단에 제가 있는 걸 보고, "왜 남친이랑 가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남친이랑 가서 자게?' 그런. 모두 다 있는 데에서 큰 목소리로.



면접참여자 7

2) 청년여성의 일과 건강 경험

㉠ 빠르게 반복해야 하는 작업들: 근골격계 질환

지원사업 전체 신청자, 최종지원 대상자, 면접 참여자들이 일하다가 생겼다고 말한 질환은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호소하는 질환은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다. 면접참여자 11명 중에서도 일하다가 겪은 사고로 인한 손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성 질환을 겪고 있었다.

면접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몇몇은 중학교 때부터 음식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판매직이나 홀서빙을 하였다. 이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뿐 아니라 매장 관리와 물품 보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반복적 육체 노동을 한다. 실제 무거운 접시를 옮기고, 와인을 포장하고, 일주일이나 3~4일 단위로 판매할 물류를 옮기고 분류하는 등 빠르고 반복적 신체 움직임을 수행하지만, 그 건강 영향은 간과되곤 한다. 아이스크림가게 판매원인 면접참여자 1은 허리디스크를, 와인가게 판매원인 면접참여자 6은 회전근염증을, 식당 홀서빙 종업원인 면접참여자 11은 "파스를 달고" 일할 정도로 일하다 몸이 아파졌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작업량, 물품의 무게, 반복된 작업 동작 등 구체적 근거로 아프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면접참여자 1

물류 정리할 때는 젤라또 5kg짜리 바트가 한 번에 40개에서 7~80개 정도 들어와요. 음료 컵도 있고, 뚜껑, 홀더, 티슈, 손가락도 들어와요. 크로플을 파니까 칼도 있어요. 젤라또에 먼지 안 들어가게 덮어놓는 유산지도 있어요. 캔 음료나 유리병 음료도 혼자서 다 나르고요. (중략) 음료도 다 만들고, 젤라또도 혼자 푸고, 크로플도 혼자 굽고. 식재료도 우유도 냉장고에서 날짜 확인하고 폐기하거나 시키거나. 재고 확인도 제가 하고요. 왜냐면 매니저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미리 해두는 거죠.



면접참여자 6

억울했던 거는, 면접 볼 땐 이런 업무가 있다는 걸 못 들었었어요. 저는 판매만 하고 일만 잘 하면 될 줄 알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회전근에 염증이 여기 (팔)까지 퍼져서 너무 아파서 잠이 안와요. 병원에서는 "이쪽 팔이 지금 난리가 났다. 왜 어쩌다 그랬냐. 너 뭐했냐. 이 지경 될 정도로 뭘 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 달 반 일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와인 옮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문제는 와인을 담아 줄 때 들어서 이렇게 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300~400만 원 어치를 혼자서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홀서빙, 그냥 주문받고 메뉴 나가는 일이고요, 청소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 다행히 막 크게, 외상적으로 크게 (다친 건) 없었고요. 저도 그림 그리고, 손을 쓰는 일을 하니까 주의를 많이 하고 일하는 편이라 웬만해서는 크게 다친 적이. 병원을 안 가서 그런가? 기억이 없지만, 파스는 달고 살았어요. 파스는 항상 붙이고 있었고.



면접참여자 11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웅크리는 자세로 일하거나, 장시간 쉬지 않고 반복된 작업으로 구성된 일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 빌딩 청소를 하는 면접참여자 5는 오염된 곳을 청소하기 위해 북북 닦거나, 계단 한칸 한칸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채 고정된 자세로 일한다. 면접참여자 11은 아동미술 학원에서 아동 신체에 맞게 제작된 책상과 의자에 몸을 구부려 아이들을 지도하며 일해야 했다. 일하는 7시간 중에서 미술 교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의자에 앉을 수 없는지 묻자, "원장님이 좋아하지 않아서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면접참여자 4는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이용자에 맞춰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자,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해졌다.



면접참여자 5

건물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제 사무실 분리 수거 해주고, 복도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집마다 있는 거 청소하고. (중략) (계단 청소도 하니) 무릎 아대를 하고 다녀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하려고 하고요.



면접참여자 11

목이랑 허리 쪽이 많이 아파요. 잘 안 퍼지더라 고요. 7시간 정도 계속 이려고 있으면. 물리 치료 받으러 다녔어요. 도수 치료나. 병원에서는 일자목 다음이 역C자 목인데 역C자 목으로 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교사가 앉아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한두 달 일하고 금방 아팠던 거 같아요.



면접참여자 4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이동 보조를 하는 거예요. 옷 입고 이런 것 부터, 씻는다고 하면 씻는 걸 보조를 해드리고, 우리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의 방이 청소가 필요하다면 제가 청소 하는 거고요. 병원에도 같이 가고요. 근데 이분들이 바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허리디스크 있으면 바닥 생활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식탁 내려놓고 하려면 바닥을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계약된 노동 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거나, 법정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밥 먹을 시간 없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잔업이나 다음날 작업 준비 등 이유로 장시간 일하곤 했다. 게다가 계약한 노동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면접참여자 5는 월급일에 '기프트콘'이나 "용돈처럼 5만 원"을 더 받는 정도였다고 이야기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면접참여자들은 판매 아르바이트, 교육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지만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응대할 손님이 점차 늘어나거나 봄비는 시간대에도 업무량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는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면접참여자 1

카페에서 월~금 주5일 동안,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쉬고요. 아침 부터 문 열고,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었던 거 다 빼고, 진열하고, 크로플 생지 해동시키고, 청소하고, 창문 닦고, 어느 정도 오픈 준비를 마친 뒤에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에 몰류가 들어 왔는데, 몰류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계속 혼자 채우고, 치우고, 넣었어요. 아무 래도 혼자 매장 관리를 하니까, 휴게시간을 법적으로는 주는데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밥도 막 서서 먹고 그랬었어요. 창고에서 숨어서 먹다가.



면접참여자 5

학원 다 들고 마지막에 와서 늦게까지 있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있으면 가끔 야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이 계속 밀려서 7시, 8시, 9시, 10시까지 있었던 적이 자주 있었 어요. 사실 점심을 못 먹고 일했어요. 점심시간을 따로 안 주셨어요. 원장님이 식사를 때에 맞춰서 드시는 분이 아니라서 덩달아 저도 그렇게 됐어요. (추가수당은 원장님이) 좀 과하고 힘들 었다고 판단되시면 가끔 기프트콘 보내주시고, 아니면 월급 나올 때 용돈처럼 한 5만 원 더 주신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8은 애견훈련사로 애견유치원에서 일하는 업무를 하루 일과에 따라 설명하였다.



면접참여자 8

8시에 출근해서 보호자님들 보기 좋게 신발장을 정리해요. 걸어오는 아이들은 목말라 할 수도 있으니, 물을 바로 준비하고요. 대소변판이랑 비품 그날 쓸 걸 준비하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요. 오늘 등원할 아이들, 예약 명단을 보면서 요구사항을 확인해요. “몇 시에 오고, 밥을 4시에 주세요.”, “우리 아이는 간식을 주지 마세요. 오늘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미리 확인해서 리스트를 쓰고 정리해놓아요. 등원하면 보호자님께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요. 아이 예뻐해 주면서, “오늘 특이한 거 없냐. 상태는 어땠느냐” 다 체크를 해요. 다친 데는 없는지. 요구사항 확인하면서 아이들 어지르는 거 치우면 한 10시쯤 돼요. 그럼 아침밥을 주죠. 유치원이나 식사 교육을 하면서 먹어요. 교육하는 걸 핸드폰 세워놓고, 촬영하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동영상을 편집해서 각자 보호자님께 보내드려요. 피드백이 오면 빠르게 답장해줘야 하니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일해요. “오늘은 밥을 남겼네요”라고 답이 오면, “오전에 공부할 때 간식을 조금 많이 먹어서, 일부러 밥을 조금 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빨리 답장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실내에서 놀면서 (다른 강아지한테) 시비거는 애들 진정시켜주고. 11시쯤엔 일대일로 교육을 해요. 어떤 애는 개인기, 어떤 애는 간식을 올바르게 받아먹는 방법, 교육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간단한 “손” 동작 정도 가르쳐요. 강아지가 하루에 7~10마리 오는데, 한 마리당 10분 정도 교육하면 12시 30분쯤 돼요. 그럼 다시 점심 먹고 반복이죠. 오후 1시부터는 1시간 30분 정도 산책하고요. 산책하면서 보행 교육도 같이 해요. 풀밭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걸 보호자님들께 보내드리고, 피드백이 오면 또 바로 답장해드리고요. 돌아와서 애들 발 닦아주고 나면 오후 3시쯤 돼요. SNS에 꼭 올려야 하는 게시물이 정해져 있어서 사진이랑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4시쯤 되고요. 4시에 밥주고, 청소하고, 물 갈아주고, 짬짬이 서류 작업도 하고요. 아이들 갈 때 서류 작업하고, 운동량, 식사량 체크하고, 재고정리, 훈련할 때 쓴 간식 등 사야 할 비품을 정리해요. 오후 5시쯤 되면 아이들을 성향별로 분리해두고, 실내 운동장 청소를 하죠. 오후 6~7시 사이에 하원시키면서 보호자님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집에 가서 밥을 얼마 먹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해요. 하원시키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릇 닦고.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한다고 카톡으로 원장님께 일일보고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일하기: 업무상 긴장 상태

몇몇 면접참여자들은 아파도 쉬 수 없고 계속 같은 자세로 일하고 응대해야 하는 이유를 CCTV를 통한 고용주의 감시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재량권을 잃은 채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고용주의 요구대로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해야 하며, 심리적·정신적 긴장 속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여성이 일하는 직종에서는 장시간 쉬지 않고 일하기,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편견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간과하게 만든다.



면접참여자 1

본사에서 CCTV로 저 일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빨리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중략) 물류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손님들 오는데 바로바로 받지도 못하는 걸 본 거죠. 근데 웃긴 건, 알바를 더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더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진상 분들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11

대표님이 지금은 바쁘셔서 안 보시는데, 초반에는 CCTV를 보셨어요. 그래서 (안 찍히는) 창고 쪽으로 가서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당시 팀장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직원분한테 넌지시 얘기한 거를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CCTV) 사각지대를 찾아서 “여기 잠깐 서 있어도 되나?” 이려고 그랬어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일하기에,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낳는다. 계약직으로 여러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면접참여자 2는 일터에서 휴게 시간도 휴게 공간 없이 일한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근골격계 부담 감소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라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를 위한 연차 사용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면접참여자 2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눈치 보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이 아픈데 스트레칭조차 하지 못하면서 눈치 보는 게 (스스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전에) 제가 그냥 한 번 일어서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팀장님께서 “정신없게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스트레칭도 한 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병원도 예약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

CCTV를 통한 감시가 아니라도, 면접자들은 고객을 응대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돌봄수혜자와 고객에 맞춰 자신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하기에 긴장한 채 일해야 한다. 여자라면 누군가를 돌보고 감정을 잘 관리할 거라는 젠더 편견은 감정노동과 돌봄노동 숙련을 저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일하며 겪는 사회심리적 위험을 간과하여 그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긴장을 계속 겪게 만든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면접참여자 4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이의 행동과 말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일상을 보조하는 어려움에 돌봄 노동을 “혼이 나가는”, “기 빨리는” 일이라 이야기한다. 돌봄노동은 육체노동이자 감정 노동이며, 상황마다 순간 판단력과 높은 집중력, 그리고 높은 대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면접참여자 4

한 녀 달쯤 됐을 때 ‘나 이 돈 받고 이 일을 할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두 명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출퇴근할 때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중간에 앉아서 쉬고, 그때 1만 5천 보씩 걸었어요. 근데 감정노동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하는데,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되게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알아듣기에는 힘든 억양인데, 계속해서 맞장구를 해주고요. 집에 가서 먹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양치할까요?’ 했더니 “(소리 치며) 안 해!” 하시고. (웃음) 왜 안 하냐고 해도 “몰라! 안 해!” 하시고요.



면접참여자 4

요리해달라고 하면 김치찌개 해드리고, 퇴근하면 다시 그분 데리러 갔다가 집에 모시고 와서 설거지하고, 퍼줄 맞추기하고, 그거 하면서 컴퓨터로 이것저것 치라고 하면 해야 하고, 남동생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하고. 인사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그게 너무 다. 그냥 기가 빠린다는 느낌? 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데 그냥 애가 옆에만 있어도 혼이 쏙 나가요. 왜냐하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넘어지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신경 쓰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활동지원하면서 11,150원을 받나 싶은 거죠. 돌봄교실에선 앉아있을 수라도 있지...



면접참여자 2

20살 때 처음 회사 들어갔는데, 떡볶이를 배달시키셨는데 대리님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가서 단무지 물이라도 빼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단무지 물 빼러 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뭐라도 내가 다 해야 하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때. 눈치가 없어서 잘렸구나, 윗사람들한테 싹싹하지 못해서 잘렸구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다 보니.



면접참여자 10

막내 입장에서 ‘못하겠다’, ‘무리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쫄보? 겁쟁이여서요. (중략) 막내니까 ‘더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내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상사가) 움직이기라도 하면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 정신질환

면접참여자들 중 산재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일터에서 발생한 사회심리적 위협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호소한 이들은 두 명이다. 면접참여자 6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 장애를 앓게 되었지만, 일터의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인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일하며 겪는 배제로 인한 우울을 경험한다.



면접참여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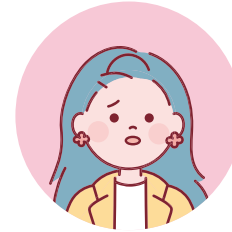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을 신입하지 않아요. 묘하게. 묘하게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를테면 뭔가 결정하거나, 논의할 때 그동안 저와 논의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할 때는 저랑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40대 남성 활동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남성을 신입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느꼈어요.

두 명을 제외하고도, 면접참여자 여성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산 형성이 어렵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무시당하며 자책과 우울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도 일터에서 큰 소리로 모멸적 언사, 공격, 비난을 받아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트리거가 된 사건을 생생히 묘사한다. 높은 강도에 몸이 아프게 된 이후, 업무를 줄여주거나 인원을 더 뽑아달라고 말해도 상사와 고용주는 요구를 무시한다. 면접참여자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계속 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억울, 분노, 무력감,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자살 사고suicide thought나 공황 장애 등을 호소한다.



면접참여자 2

삶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 원래 그냥 학교 다니고,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갈 수 있는 나이일 텐데. 근데 19살 때부터 일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하루의 절반을 앉아만 있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구나. 너무 스트레스 심하고, 맨날 똑같은 자세로 이메일만 하루에 몇 십 건 보내고, 전화 받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골반도 아픈 거예요. 신체 정신이 둘 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 눈물이 나올 거 같아.



면접참여자 7

제가 안 그래도 손목이 약한데 손목도 많이 써서. (와인) 박스 300~400만 원 어치를 옮기고, 들고 저 혼자서. 숨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5백 가까이 매출 찍었던 날이었는데, 직원은 저 한 명이었거든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응대하는데,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고, 공황장애 막 오듯이 눈앞이 아찔하면서요. 그래서 갑자기 고개 확 돌려가지고 숨 진짜 크게 내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점장님이 그때 놀라서 뛰어왔거든요. 너무 사람이 안 줄어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면접참여자 8은 오히려 자신의 숙련이 더 높고 대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일까지 처리 하곤 했지만 처우가 달라지지 않았다. 고졸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높여 대졸 노동자들보다 더 일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면접참여자 8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자 한 욕망은 어쩌면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얻고자 8년간 노력한 것이라 회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노력했지만 승진 등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자, “역장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정신과 진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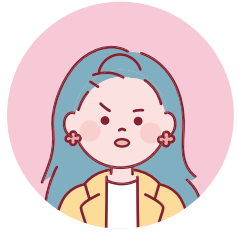


면접참여자 8

저는 본사에 있었거든요. 현장을 관리할 일이 없는데, 현장 관리까지 맡겨진 거예요. 현장 관리하는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일을 못해서. 제가 경기도 현장까지 나가서 일 다 해주고, 알려줬거든요. 복귀해서 일하다가 그 직원 급여를 알게 됐는데, 저보다 많은 거예요. 제가 오래 일해서 연봉 협상할 때 올려달라고 했더니, 3% 올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역장이 무너지는 수준이었어요. 나는 내 업무에만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거의 상무님 비서처럼 부려지고, 부장님이 따까리는 다 하는데. 이게 뭐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때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뭔가가 찾아와서. 정신과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 직장 내 성희롱

면접참여자 7은 여성으로 일터에서 겪는 사회심리적 위험(psychosocial hazard)은 고객, 직장 동료와 상호작용 속에서 성희롱을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채 일터를 조용히 떠나거나 참아야 한다는 점이다. 면접참여자 7은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상사의 성희롱을 공공연히 지속적으로 당하였지만, 문제 제기하면 불이익을 겪을까 참으며 인턴 기간을 마쳤다. 향후 개인적 불이익 뿐 아니라 자신의 학교와 회사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인턴십 자체가 취소될까 우려하였다. 일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를 향한 분노뿐 아니라 그렇게 대응한 자기를 향한 “화”라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



면접참여자 7

성희롱으로 진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랑 밥 먹으니 역시 맛있죠”, “네 목소리가 너무 sexy하다. 너 여기 가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려서 대처를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화내고 정색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별다른 대답은 못 했어요. 그때 제대로 못 했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면접참여자 3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고용주와 가해자, 피해자들이 3자 대면할 때 직장 상사인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말들을 직장 안팎으로 퍼뜨렸다. 면접참여자 3은 매일 울고, 자해할 정도로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피하고 싶지 않아” 직장을 다니며 다른 피해자들과 고소를 진행 중이다.



면접참여자 3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직원도 당하고, 총 세 명한테 그러셨던 건데도요. (중략) 제가 진술서 쓰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이미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했던 게 많았고, 그래서 자해도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몸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밥도 못 먹게 되고, 맨날 울고, 상담을 받게 됐었고요. 근데 저도 회사를 관두면 그만이었는데,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피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피하는 방법밖에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고 배워가야겠다. 뭔가 마음이 단단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틴 거죠.

3) 청년여성의 산재(미)이용 경험

◎ 내 병이 “산재인 줄 몰랐다”

청년여성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산업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지원사업에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여성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직업성 질환 혹은 산업재해로 정의하게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정이 청년여성의 노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참여자 6

‘이거 내 얘기다’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해당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산재라고 명명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산재를 산재라고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전화를 한번 주셨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게 산재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전화 통화할 때 혹시 산재로 신청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산재가 되나요?’ 그랬거든요. 저는 되는 줄도 몰랐거든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상만 생각했었고, 산재는 뭔가 투쟁해야 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일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재 신청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11

참여하면서 산재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도 막상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기사 인터뷰를 보다가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단어들에 막혀서, 절차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지원사업을 해주시니까 괜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일하면서 중간에 안전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게 좀 많아요. 그냥 사진 찍고, “나머지 읽어 보세요”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많지만, “다쳤을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는 많이 없잖아요. 정말 산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하게 그냥 제 건강 문제고, 회사에서 뭔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 산재신청 경험

본 면접참여자 중 유일하게 산재를 신청한 면접참여자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산재신청절차가 이전보다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참여자 8은 산재를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홀로 작성할 수 없었다. 만약 무료 법률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승소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몸도 아픈데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면접참여자 8

제가 지금 수급자로 있어서 그나마 나아요. 무료 법률지원 이런 것도 있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은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변호사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변호사비가 막 200만 원 이려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니깐. 일반 벌이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잘려가지고 직장도 없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당장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지 안 이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보통은 포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보상)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진행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직장을 새로 구하면서 그걸 진행하기는 힘드니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엄청 많고.

◎ 업무상 사고의 대응 경험: 자비로 치료하거나 참고 일하거나

면접참여자들 중 명백한 업무상 사고에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채 일해야 했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접참여자 9는 두 번의 업무상 사고를 겪었지만 한 번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사고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고, 배달 건당 수입이 들어 오기에 빠르게 운전해야 할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만 보험 처리를 하였고, 다친 노동자의 몸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교통사고로 부딪친 후 눈을 떠보니 큰 차 아래 오토바이와 자신이 쓰러져 있어, 응급실에 갈 때만 대표의 치료비 지원을 한 차레 받았다. 그렇기에 교통 사고 치료는 더이상 받지 못했다.



면접참여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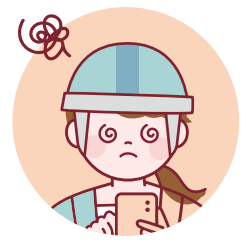
처음에 응급실 간 것만 (대표님) 개인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치료를 아예 못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을 보험 처리를 해줬지만, 제가 백방으로 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일을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혼다 측에서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언덕길 갈 때 10km밖에 안 나왔어요. 배달이 거의 안 되는 거죠. 하루에 진짜 14~15개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요. 돈이 안 벌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병원 갈 시간도 없었거니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치했죠. 그래서 지금도 어깨가 지랄 이에요.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생각대로랑 바르고. 왔다도 있을 걸요? 웬만해서는 솔직히 다 있긴 해요. 근데 처리를 잘 안 해주죠. 근데 저 수술하고 나서 일한 착한 사장님은, 만약에 제가 산재를 안 들어왔는데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도 산재 처리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천사. 저 혼자서 다치긴 했는데, 대표님이 그냥 돈으로 주셨어요. 대표님이 '병원 갔다 와' 이려고 돈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 돈 받고 응급실 갔죠.

면접참여자 9는 물류센터에서 도착하는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포대 자루에 머리를 맞았다. 머리가 “멍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고, 혈압이 불안정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직원 차를 타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퇴근시간까지 일했다. 몇일 뒤 회사 보건팀 직원이 “괜찮나?” 물어 “아프긴 한데 좀 괜찮다”고 말했다. 면접참여자 9의 “아프긴한데 좀 괜찮다”라는 말은 아프지만 일할 수 있다는 즉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아프긴 한데”라는 말에도 회사는 근로 중 사고로 부상 입은 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87%가 자비로 산재를 치료한다는 보도(머니투데이, 2020.10.20.)처럼, 면접참여자 9도 당연히 치료비는 자신의 몫이라 여겼고 경제적 시간적 취약성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아프긴 한데 괜찮다”며 일하는 것이다.



면접참여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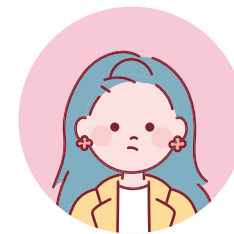
사고를 당했죠. 그리고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를 비워버리면 강아지들밖에 안 남으니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병원 가려면 뒤에 밤 근무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조금 일찍 와주셔야 하는데, (그분도) 일이 있는 거예요. 시간 조율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려고 한 달을 넘게 기다렸어요. 치료도 못 받고 병원을 갔는데, 연골판이 완전 뜯어진 것 같다고, 2차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죠. 근데 바로 2차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또 한 달 정도 기다렸어요.



면접참여자 9

물건이 옆으로 3개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상차하는 작업자들이) 떨어진 거 주우려면, 또 허리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숙여야 하는데. 그래서 ‘저건 내가 올려주자’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있는 걸 주워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제 입에서 ‘억’ 했죠. 옆에서 하시던 분은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황급하게 (떨어진) 박스 치우고. 머리 한 대 얻어맞으면 약간 멍한 거 있잖아요. 멍하고 멍한 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혈압이 불안정해서 직원분 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치료가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치료받은 뒤에 기다렸더니 다시 데려가서 근무를 시켰어요. (나중에) 보건팀에서 그 이후로 괜찮으시냐길래, ‘아프긴 한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산재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면접참여자 7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점장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바람에 본인의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였다.



면접참여자 7

직원을 두 명을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평일은 거의 혼자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급여를)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매장도 그냥 옷가게 매장인데 거기서도 막 240만 원 주는데, 그 점장님은 적은 돈에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나르는 것도 했으니까 돈을 더 줘야 하는데, 돈을 적게 쓰고 싶어 하고. 나중에 제가 다쳤잖아요. 처음엔 점장님도 산재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원하면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얘기가 바뀐 거죠. 과정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네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게 아니어서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제가 도수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산재는 승인되길 기다리는 동안 제 돈으로 써야하잖아요. 어쨌든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해서, 제가 실비보험 들어둔 거에서 60~70%였나? 나오긴 했거든요. (산재는) 그냥 포기했죠. ‘그냥 내 돈 써야지’ 하고.

면접참여자 8은 일하다 다쳤지만 애견유치원에서 홀로 근무하기에 사장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까지 두 달을 기다린 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다쳤던 날에도 조금 빨리 퇴근하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교대를 해줘야 할 저녁 타임 선생님이 일찍 오지 못했다. 그 선생님 역시 시간제로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다. 사장은 면접참여자 8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후임이 없는 동안 면접참여자 8은 병원 진료 시간 확보를 위해 혼자서 분투했다. 다치고 한 달 뒤에야 첫 진료를 받았고, 2차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고 두 달 뒤에야 일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면접참여자 8은 자비로 먼저 치료한 뒤 산재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장이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는 바람에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재보상 미이용 경험: “산재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면접참여자들은 일하다 아프고 다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각기 산재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점은 일하다 아파진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는 직장 문화에 있다. 면접참여자 2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목,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직장 상사는 마우스패드나, 허리 쿠션 등 자신의 몸에 맞는 장비를 통해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라고 하였다. 면접참여자 11은 아동미술학원에서 매일 7시간 이상 일한지 한달이 지나자 역C자목과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원장에게 상의하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며 잘 관리할 것을 권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한다. 이러한 직장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노동자 개인이 어려움을 오히려 부담한다.



면접참여자 2

목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 ‘어 나도 아파’라고 하시니까. 마우스 패드를 좋은 거 쓰거나, 허리에 쿠션 받치고 하라고 하셨어요. ‘다 아픈 거지’ 이러시면서.



면접참여자 11

병원에서는 일자목 다음이 역C자 목인데 역C자 목으로 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교사가 앉아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한두 달 일하고 금방 아팠던 거 같아요. (원장님은) 마음으로 걱정을 해주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몸을) 피고, 병원을 누구한테 소개 받으라고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신청을 하면 자신에게 보복성 불이익이 올까 걱정한 이들도 있었다. 면접참여자 5는 자신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산재보상을 요구한 이들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스케줄 근무에서 바로 불이익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산재보상을 받을수는 없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자신의 일정에 따라 스케줄 근무를 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월급을 떼일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자신은 이 일터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면접참여자 5

산재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보면 기가 센 어머니들은 당당하게 “나 그거 산재 보호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하면,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거나... 스케줄 매니저가 매출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문제를 자주 일으킨 사람과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5일 (일을) 원해도 3일만 넣어주는 식이니깐다들 눈치 보고 일해요. 매니저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죠. 스케줄짜는 게 큰 뭔가 권력이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몇 이들은 일하다 다치고 아파져도 자신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기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면접참여자 4는 장애인돌봄지원사로 일하며 허리를 다쳐 수술하였지만, 중년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직업병'이 아닌 '노화의 결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산재신청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면접참여자 11은 종일 서서 해설하느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규직도 일하다 12바늘을 꼬매도 자비로 치료하는 현실에, 계약직인 자신은 산재보상 신청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면접참여자 4

센터에서는 '허리 건강 조심하셔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일하다 다친 거니까 산재하라는 말은 안 했죠. 수술 비용은 일단 보험으로 청구 했고요. 병원비는 계속 실비로 청구를 했었죠. 10%까지만 내면 되니까요. 수술비를 일단 일시불로 글을 댄 엄마 신용카드를 썼는데, 바로 보험 청구해서 들어오긴 했어요. 센터가 뭘 해줬지? 아! 수술하고 재활하느라 한 달 쉴 때, 편지와 두유 한 박스를 줬어요. (웃음) (중략) 허리디스크가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알아봤는데 기준이 있대요. 몇 kg이상 중량을 몇 번 이상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드는 게) 중량은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본다고.



면접참여자 11

얘기하긴 했는데, 그분들도 처우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대표님은 일단 회사에 안 계시고, 복지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서요.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같이 일하시던 분이 사육장인 유리 수조 일부가 파손되어서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직원분이 바닥을 닦다가 거기에 손이 베여서 12바늘을 꿰맸는데 산재 신청을 안 했어요. 정규직도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데.

업무상 질환에 명확히 해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요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면접참여자 1은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였다. 그녀는 치료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하루치 임금으로 설명한다. 주어진 조건 또는 자원 속에서 자원이 부족하기에, 명절 수당이 더 나오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면접참여자 1

병원비도 그렇고,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일하고 있기도 했고요. 병원에는 안 갔는데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추석 때 손님이 매장에 다 들어차고, 밖에 줄 설 정도로 많았는데, 명절이니까 (다른 알바들은) 고향에 가고, 놀러가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매장에) 여섯 가지 맛을 다섯 가지 가격에 주는 이벤트도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몸은 두 개인데. 엄청 급하게 뛰어다녔는데, 보통 가게에 냉장고가 밑에 있잖아요. 숙여서 여느라 허리를 숙이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른 알바생도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더라고요. 허리가 나간 것 같다고 했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바쁘는데 빨리빨리 하죠.'라고 말하고 일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터져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명절 수당이 아까운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파스 바르고 일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에도 나왔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명절 지나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한거죠. 계속 참고 일했는데, 너무 너무 아팠어요. (중략) 병원에서는 따로 검사해보라고 하셨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안 했거든요.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연골 검사는 몇만 원 든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악으로 그냥 버텼어요.

4) 산재회복 지원사업 이용 경험

면접참여자들은 본 지원사업을 다양한 경로로 접하여 신청하였다. 면접참여자 1은 청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상근자의 소개로, 면접참여자 4는 인터넷을 통해 지원사업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 면접참여자 10은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보고 산재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뿐 아니라 일하다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성인 자신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면접참여자 1

20살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보통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가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니까 장시간 서 있는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나, 카페, 일식집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서 있고 뛰어다니니까 무릎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손목도 아프고. 저는 그게 너무 무리해서 잠깐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 동안 앓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들 순 없으니까. 생계 유지도 해야 하고, 대학을 안 갔으니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알바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진짜 억지로 힘들어도 계속 일했던 것 같아요. 그걸 ** 선생님께 말씀드렸거든요. ** 선생님 통해서 신청했어요. 그땐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서 있던 게 오래 지속이 됐으니까 앉아 있어도 힘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면접참여자 4

‘복지는나의힘’이라는 카페에서 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터뷰어 : 청년, 여성, 산재라고 했을 때, ‘이거 나잖아?’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근데 산재는 모르겠어요. 청년, 여성, 노동, 병이 이러면서 뭐든 찾아 다닐 때라서요. (웃음) 한 달 내내 돈을 못 벌던 때였으니까요.



면접참여자 10

제가 인맥이 되게 좁고,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여성들이 몸 쓰는 일을 하는 경우가 비율이 낮으니까, 산재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게 많을까?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정신적인 것도 된다’ 그렇게 적혀있어서 그런 사람도 많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면접참여자들은 아파도 치료하거나 회복 기간을 보내지 못한 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적 문제로 이야기한다. 몇 년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서 일했기에,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했다. 또한 이들은 아파도 가족의 경제적·관계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면접참여자 대부분은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부재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여성도 상당수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혼자 생계를 꾸리다 일년 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참여자 8과 같은 2030 청년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8월 기준 2030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4만 5천명(KBS NEWS, 2022.10.28.)이다.



면접참여자 1

매달 30만 원 정도는 엄마한테 드렸고요. 나머지 50만 원 정도로는 휴대폰 요금 내고, 보험료 내고, 적금 내고, 청약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중략) (제가) 돈을 버니까 엄마가 좀 맛있는 것도 드셨으면 하는 생각에 매달 챙겨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너무. 저는 내야 할 것도 많은데, 엄마한테 돈을 드려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서로 경제적 지원은 없고) 그냥 각자 번 돈으로 잘 생활해보자 이거예요.



면접참여자 4

일단 부모님이 이혼하시기도 했고, 엄마가 저한테 도움을 안 주기도 하고. 아빠 쪽은 빛이 많아서. 아빠가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학을 떼고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면접참여자 8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제가 먼저 신청하게 됐어요. 친구가 사회복지사여서, 그런 거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중략) 저도 부모님과 연락은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전 약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스타일이라 제가 전화하면 오히려 걱정하세요. 애가 왜 전화했나 불안해하고. 물론 제가 아픈 거를 아니까 걱정은 하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면접참여자들은 산재회복지원금을 받고 우선 현재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하였다. 면접참여자 6은 남들에게는 10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요긴하게 잘 썼다”고 말한다. 대부분 돈이 없어 중단된 치료를 재개하여 아픈 몸을 돌보았다. 면접참여자 3는 치료방식에 따른 부모와 자신의 갈등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부모에게 지원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면접참여자들 중 일부는 당장 시급한 치료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치료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요양하지 못해 오랫동안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회복지원금이 마음에 여유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면접참여자 3

약을 먹으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돈 지원해주셔서, 그걸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지원받은 걸 모르세요.)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과 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면접참여자 6

일단 병원비로 썼고, 그리고 저축.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 저축금 어떡하지 했는데. 저한테는 정말 요긴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어떻게 항상 돈이 없을 때마다 들어오니’ (웃음)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이 없으면 자꾸 주위에서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근데 항상 열심히 해서 몸이 늘 아팠기 때문에. 제가 약간 노닥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면접참여자 11

혹시 몰라서 일단 안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고요, 일단 나가게 된다면 보험료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그 진료비나 약을 먹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쉬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휴식이 답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아파서 일을 쉬었는데, 다시 일해야 하나 싶고, 검사 비용으로만 10만 얼마씩 나오니까 다시 검사하기 좀 부담스럽고, 괜히 또 아파도 저번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게 되죠.





IV. 평가와 계획

1. 만족도 설문결과

2. 지원사업을 마치며

Part. IV 평가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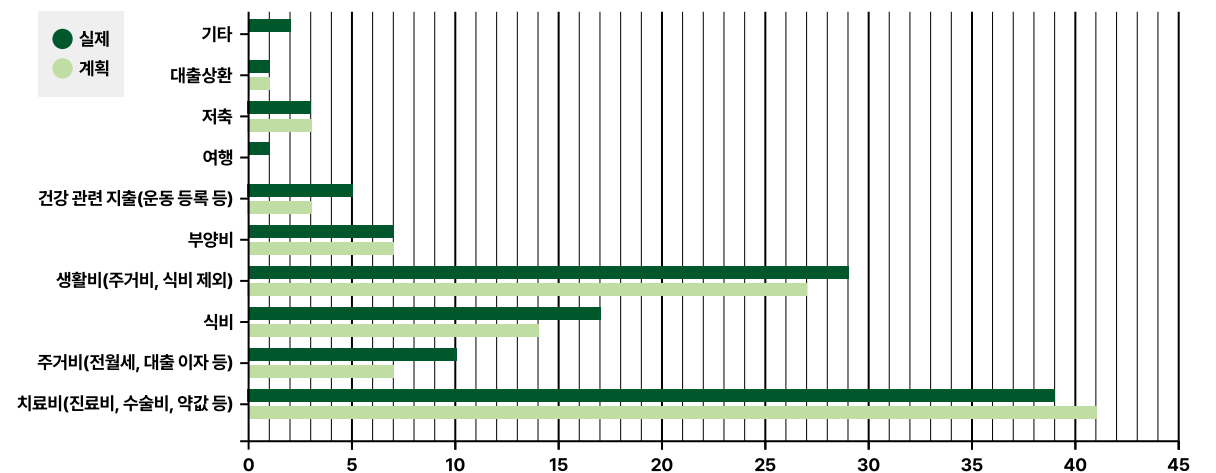
Part. IV 평가와 계획 01. 만족도 설문결과

회복지원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 12월에 최종 지원 대상자 50명에게 온라인 만족도 설문을 발송했다. 감사하게도 전원이 조사에 응하였고, '일하는 청년여성'에게 한 마디를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선택 문항에 정성스러운 글들을 남겨 주셨다. 만족도 조사 결과와 더불어 청년여성이 서로 나누고 싶었던 말들을 여기에 함께 공유한다.

1) 회복지원비 지출 항목 1위는 '치료비', 2위는 '생활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당시 '계획했던' 사용처와 지원비를 받은 뒤 '실제로' 지출한 사용처를 비교하는 질문에서는 '치료비'가 1위를 차지했다. 50명 가운데 39명이 치료비에 지원비를 사용했다. 2위는 '생활비(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3위는 '식비'였는데, 각각 29명, 17명이 해당 항목으로 지원비를 사용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지원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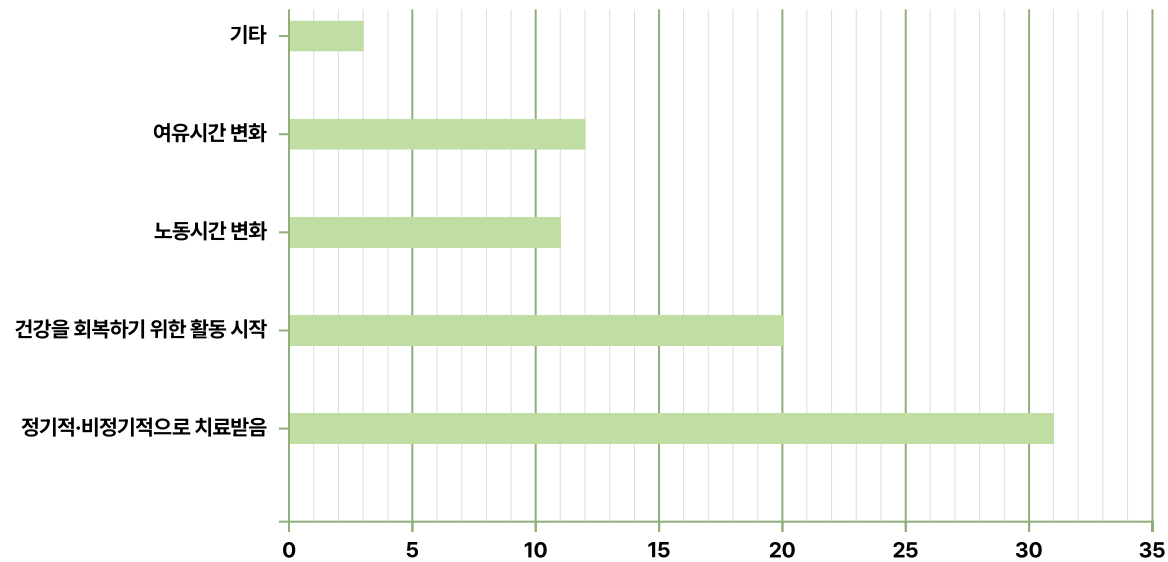
	'계획했던' 지원비 사용처		'실제로' 지출한 사용처	
치료비(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	41	82%	39	78%
주거비(전월세, 대출 이자 등)	7	14%	10	20%
식비	14	28%	17	34%
생활비(주거비와 식비 제외)	27	54%	29	58%
부양비	7	14%	7	14%
건강 관련 지출(운동 등록 등)	3	6%	5	10%
여행	0	0%	1	2%
저축	3	6%	3	6%
대출상환	1	2%	1	2%
기타	0	0%	2	4%



2) 지원비 수령 이후, 82%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치료받음'

산재 회복지원비를 받은 이후, 치료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회복 관련 변화가 생겼는지 물었을 때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병원·약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응답이 32%, 비정기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총 82%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8%의 응답자는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청년여성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데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회복 관련하여 생긴 변화를 물었을 때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한다'에 31명(62%)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운동 등)을 시작했다'에 20명(40%), '여유시간 변화(쉬 수 있는 날이 생김)'에 12명, '노동시간 변화(병행하던 일을 줄임 등)'에 11명이 긍정 응답을 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청년여성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노동시간 변화 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셈이다.



3) 지원사업 만족도, 88% 5점 만점

만족도 관련 문항은 크게 △증빙서류 제출 편의, △처리기간의 신속도, △사용처, △액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점 척도로 최종 종합평가를 내리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본 사업에서 요구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적당했는지 물었는데, 38명(76%)이 매우 적당했음(5점)이라고 답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최종 지원비 지급까지 처리 기간이 신속했는지 물었을 땐 38명(76%)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적당했나요?			처리 기간이 적당했나요?		
5	38명	76%	5	38명	76%
4	6명	12%	4	6명	12%
3	5명	10%	3	6명	12%
2	1명	2%	2	0명	0%
1	0명	0%	1	0명	0%

산재회복 지원비 100만 원이 계획했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는지 물었을 땐 18명(36%)이 '매우 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했다'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 10명(20%), '충분하지 않았다'가 8명(16%), '매우 충분하지 않았다'가 4명(8%)였다. 지원비 100만 원이 1회만 지급되었다 보니, '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지원금이 병원비로 빨리 나가서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 등 지원금 규모에 아쉬움을 표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비 100만 원이 계획했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나요?		
5	18명	36%
4	10명	20%
3	10명	20%
2	8명	16%
1	4명	8%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를 평가했을 땐, 전체 50명 중 44명(88%)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지원금이 급한 치료비·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하다가 생긴 건강 문제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서로 나누고 싶은 말들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만드는 사회 때문에 어떤 고통에 더 쉽게 빠졌던 것뿐입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요.”

“느리게 걸더라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길”

“저처럼 신체적 피해를 일을 다니고서부터 입으신 분들 절대 자기 탓도 무엇도 아니니 혹여나 내년에도 이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면 한 번쯤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분들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다치시더라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청할 당시 제 식비도 없었고 무엇보다 타지역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 돈이 더 필요했지만, 이 지원 사업으로 여유가 생겨 다행히 검사도 다시 받고 치료약도 처방받아 꾸준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많은 여성분들 몸이 안 좋아질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보시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뿌리가 흔들려도 자라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면 보입니다. 파이팅.”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에서도 우리의 몫을 살아내려 애쓰는 모든 청년 여성분들을 응원합니다!!”

“아플 땐 참지 말고 말하세요, 누군가는 들어줄 거예요.”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일하다 다친 경우를

‘내가 잘 챙기지 못해서, 내 실수지 뭐’ 라고 하거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노동과 일의 강도로 인해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소위 ‘몸을 갈아 일하고 버려지는
부속품’ 같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자신의 일에 프라이드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미뤘던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파도 힘들게 일했지만,
건강을 챙기며 일을 하니 훨씬 덜 힘들었어요.
참지만 마시고 도움 감사히 받으시고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음 좋겠습니다.”

“몸 닳을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살았다는 건 잘하는 거지만 내 몸의 변화를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버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당시가 너무나 힘들어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돌려보면
조금이나마 나에게 손을 내어주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것이 병이 되진 않겠지요?
우리 모두 아픔이 병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겐 뜻하지 않았던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많이 없는 직군 속에서
다치기까지 하니 너무 쓸쓸하고 힘들었는데
이 세상 속에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성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2023년 1월 9일. 노동건강연대와 지원사업 자문위원, 아름다운재단이 모였다. 2022년 7월부터 약 반년 동안 진행된 지원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까.

Q.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향수:

이번 지원사업에 모인 청년여성들은 취약한 사람들이예요. 중학교 때부터 노동을 시작한 사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수능 합격과 동시에 계속 일했던 사람들인 거죠. 저는 '누적된 피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80년대 구로공단에서는 '타이밍'이라는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16시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4~5시간짜리 일을 여러 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일당이 사라지니까'라고 말해요. 경제적인 문제,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청년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평가절하되기도 하고요. 가령, 아동미술학원의 책상과 의자는 아동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노동자의 인체 공학을 고려하진 않거든요. 그 업계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걸 업계의 청년여성들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일하다가 아플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뷰에서 청년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여성이 일하면서 겪는 건강 문제를 발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능력주의의 배신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해 기대가 좌절되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좌절된 경험에서 오는 울분을 호소하는 청년여성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이렇듯 직장에서 '트리거'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것을 계속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얘기해온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청년여성의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 것에 대해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청년여성의 일 이야기가 필요하다.

Q.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신청자도 많았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향수:

정신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우울증과 코로나19'라든지 '성폭력과 우울증'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일과 연결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장에서 청년여성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고, 사장들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는 이런 식으로 살 거야'라며 모멸적인 말을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아파지니까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사회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자기가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청년여성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인 듯해요.



김명화:

정신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의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규모도 크고,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특히 20~30대 청년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에서 이런 종류와 발굴과 관련된 연구가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입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는 걸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전수경:

20대 청년여성의 정신질환은 노동의 '결과물'인데,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현상'에 대해서만 몇 년 동안 유행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이번 지원사업에서 발견한 건, 우울증은 '결과'라는 거죠. 결과 앞에는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해내고 있는 집단이 있고요. 그 집단에서 겪는 문제는 기존의 노동 담론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을 천천히 확인해서 쌓아가면, 기존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청년여성 한 명 한 명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만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커진 듯해요.



김명화:

우리가 이전 지원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회적 보호가 자발적인 커뮤니티나 비정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작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현실에 공백이 생긴 거고, 그 공백을 노동건강연대 같은 사회단체와 아름다운재단 같은 공익재단이 나서서 메우고 있는 거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거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근거로 쓰여야 더 많은 청년여성에게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원사업에서 수혜자를 2천 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 앞으로 필요하죠.

Q. 청년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할까요?



김명화:

이번 사업에서 지원한 청년여성들을 보면, 백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중병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 의료비를 좀 들여서 치료하고, 조금만 쉬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하고,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다른 직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누적되죠. 처음엔 이를 쉬면 될 거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을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이런 걸 보면, 상병수당 같은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이야말로 처음에 허리를 빼었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일주일 꼭 쉬게 하고, 병원 가게 했으면 어느 정도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만난 청년여성들이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다 볼 수 있었죠. 새로운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 존재하는 빈틈이 조금만 더 메워져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안현경:

이게 어쩌면 소수의 청년여성이 겪는 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다수 청년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이지안'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해서, 할머니를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정책적으로 지자체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될 수 있고, 아플 때 문제없이 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 정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Q. 이번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SNS로 홍보를 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이정현:

이번에 '일하는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 자체를 별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 그런 것도 되는 거였어요?'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해도 막 두드려보는 사람도 있지만, 취약한 청년일수록 적극성이 낮은 듯해요. 사실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등에서 여러 배려를 갖췄는데도 참여가 어려웠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지원사업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나 연결하는 방식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김명화: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상한 몇 명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혜택이 있는데도 잘 안 찾아보거나, 설렁설렁 봐서 놓치거나, 마감을 못 지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드문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있는 것도 못 챙겨 먹는다'라고 하며 쉽게 이야기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친절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기는 해야죠.

Q.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성과나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현경:

보통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지원사업에서는 최대한 지원자들의 편의를 생각했던 게 특징이었어요. 신청할 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했고,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된 서류 2종만 받았죠. 덕분에 400명이라는 높은 참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회복'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아서 뿌듯해요. 무엇보다 그동안 청년여성이 일하는 환경이 담긴 보고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일하는 청년여성들의 목소리를 유의미하게 담을 수 있게 되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함께 논의해야 하겠지만요.



전수경:

반년 동안 만들어낸 출발점은 뭐냐면, 기존의 노동법과 산재보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청년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 처음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노동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제기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노동조합이 백업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이야기 들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이 있다고 봐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제도가 꼭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훨씬 길게 가져가야 할 거예요.



김향수: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MZ세대'에 대한 거예요. 'MZ세대'라고 하면 당당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권리를 잘 주장하고, 싫다는 말도 잘한다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게 고용주 입장에서 논의되거든요. 혹은 대기업 MZ세대는 어떠하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에서 만난 청년여성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루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면 어디 큰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언론에 보도될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인터뷰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제가 정말 산재가 맞나요?' 같은 질문이었어요. 스스로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이라고 서두에 붙이는 거죠. 뉴스에는 급식조리사의 폐암 같은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도로서 산재,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아는 산재,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일하는 청년여성이 인식하는 산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하다 아픈 건 맞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될까? 청년여성 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을 확인해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

발행일 2023. 1. 30
발행처 노동건강연대
디자인 모야간에 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 303호
연락처 02) 469 3976

집필 김명희, 김향수, 박한솔, 전수경
자문위원 김명희, 김향수, 변수지, 안현경, 이정현

발행처의 허락없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